

< 차례 >

1. 카트만두-포카라 가는 길 Way to go	2
■ 2013.7.24(수) 허페이 경유 청두, 공항 1박.	2
■ 2013.7.25(목) 청두 - 라싸 - 카트만두	5
■ 2013.7.26(금) 카트만두 - 포카라	9
2. 안나푸르나 트레킹 Poonhill Trek	12
■ 2013.7.27.(토) 포카라-나야푸르(1070m)-올레리(1960m)	12
■ 2013.7.28(일) 올레리(1980m)-고레파니(2830m)	18
■ 2013.7.29(월) 고레파니에서 타다파니까지	23
■ 2013.7.30(화) 타다파니(2160m)에서 시누와(2360m) 까지	32
■ 2013.7.31(수) 시누와에서 하산 하는 길	38
3. 포카라 Pokhara	46
■ 2013.8.1(목) 포카라	46
■ 2013.8.2(금) 포카라	47
4. 치트완 국립공원 Chitwan	52
■ 2013.8.3(토) 포카라-치트완	52
■ 2013.8.4(일) 치트완	55
5. 룸비니와 빨빠 Rumpini & Palpa	61
■ 2013.8.5(월) 치트완 - 룸비니	61
■ 2013.8.6(화) 룸비니	64
■ 2013.8.7(수) 룸비니-(바이라와-부뜨왈)-팔파	67
■ 2013.8.8(목) 빨빠 트레킹 Palpa	72
■ 2013. 8. 9(목) 빨빠-카트만두	79
6. 카트만두 계곡 Kathmandu Valley	82
■ 2013. 8.10(토) 카트만두	82
■ 2013.8.11(일) 빠단	88
■ 2013.8.12(월) 박따푸르	93
■ 2013.8.13(수) 카트만두	97
■ 2013.8.14(목) 카트만두~성도	101

1. 카트만두-포카라 가는 길 Way to go

- 2013.7.24(수) 허페이 경유 청두, 공항 1박.

게바라 : 어젯밤에는 언니, 교장쌤, 황구쌤이 인사 전화를 했다. 뒤늦게 빈둥거리다 말고 도서관에 가서 네팔 책 3권을 빌렸다. 전화 올 때 트래킹 부분을 읽고 있었다. 황구 쌤이 한 달 간 빵은 누가 사주나면서 올 때까지 빵을 끊겠다고 해서 같이 웃었다. 밤 2시까지 책을 읽다 잤다. 남편은 늦게 잤나 보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다른 책을 보다가 간단히 빵을 먹고 부엌부터 정리를 한다. 냉장고도 치운다. 움직이니까 비도 많이 온 데다 습하고 덥다. 세탁기를 돌려놓고 어제 널브려 놓은 배낭에 넣을 짐을 정리해 담는다. 빨래 널고 목욕탕 청소 후 엄마 집에 간다. 감자를 드리고 아파트에 주차 후 배낭매고 출발. 800미터 정도를 걸어 80-1번 타고 계양, 공항철도로 인천.



좀 일찍 왔으나 비행기가 지연된다. 2시에 짐을 부치면서 오늘밤 성도에 내리면

호텔 바우처를 주냐고 물었다. 잘 모른다며 들어가서 물어 보란다. 아래 분식집에서 비빔밥과 국수를 먹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쇼핑할 것도 없다.

게이트 쪽으로 가면서 남편이 에어 차이나 홈페이지에 가봤다. 세상! 출발 4일 전까지 숙소(호텔 바우처)를 신청하라고? 그걸 누가 알려 주는 건데? 황당하다. 게이트의 직원은 대한항공 소속. 에어 차이나 매니저가 와야 물어 본단다.

목이 많이 마른 걸 보니 음식이 별로였다. 카페베네에서 녹차 빙수를 시켰다. 아버지, 엄마,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게이트로 갔다. 매니저는 4일 전까지 예약하는 게 맞고 오늘은 방이 없다고 한다. 남방항공은 바로 바우처를 줘서 같은 줄 알았다고 하니 다소 난감한 눈치이다. 오는 날은 방이 딱 1개가 남아있어 자기네가 예약하고 메일로 연락해 준단다. 내가 매니저와 말하는 동안 남편은 'why pay more'에 연락하여 묻고 있었다. 담당자도 알긴 아는 눈치인데 자는 방법을 안내하지는 않는 듯. 알아서 찾아내거나 이미 아는 사람이나 예약하는 수준? 남편이 아까 에어 차이나에 연락했을 때는 2일 중 1일 만 잘 수 있다고 했다니까 누구 말이 옳은 건지.. 처음에 매니저가 성도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던 대로 강 3층 R구역 87번 카운터, T/S 호텔 카운터도 가 볼 거다. 어쨌든 남방항공과 비교해 가며 컴플레인 한 셈이라 오는 길의 숙소는 확보했다. 갈 때는 공항에서 보내야 할 듯. 예약 메일을 보내 주기로 하고 비행기는 5시 경에 떠났다.

비행기는 제주도까지 내려가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기내식은 작은 만두 6개에 찐 지, 빵, 과일. 맛은 미미하다. 남편이 검색해 보더니 국제항공은 3위 항공사란다. 남방, 동방 다음이다. 국적기가 이 정도라니 놀랍다. 남방항공은 먹이는 것, 서비스가 달랐다.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다. 2시간이 지나 허폐이에 내린다. 규모가 큰 주장강변의 넓은 초록 벌판에 농경지가 끝없다. 인공 조림된 나무들과 저수지 사이로 집들이 몇 채씩 있다. 바깥 온도는 30도가 훌쩍 넘는다. 후끈한 통로를 벗어난다. 장마 기간의 몸이 보송해지는 느낌이다. 이곳은 중국의 내륙이다. 트랜짓 표를 받고 국내선 가는 쪽 통로로 입국. 하루짜리 퍼미션을 받는다. 우리가 첫 외국인 손님. 부랴부랴 스탬프를 가져오고 부산하다. 우루무치에서와 같은 한족의 불친절은 없다. 거기

는 반란의 고장이라 그리 삼엄했겠지. 나가면 다시 검사하고 들어와야 해서 화장실도 못 간다. 우리 뒤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인천에서 같이 탄 화교계처럼 보이는 여학생들이 우수수 들어온다. 단정한 교복, 흰 양말에 검은 구두가 과거에서 튀어 나온 듯 단정하다. 샘 말씀도 잘 듣고 머리 스타일도 단아하다. 좀 이국적인 얼굴들이다. 나중에 버스에서 물어본다. 성도에 공연가는 서울 전통예고 여학생들이었다. 애들이 학생답고 예쁘다.

1시간 후 같은 비행기, 같은 자리에 올랐다. 바깥은 거의 흑 열기가 오는 사우나 상태. 잠깐 있기도 버겁다. 2시간 여 가는 동안 하늘에서 번개치는 것도 많이 본다. 위로는 맑은 하늘과 별. 멀리 구름 아래는 번개가 피아노 건반 두드리듯 연주를 펼친다. 9시 넘어 성도. 기내식은 밥과 소고기, 소시지 정도. 성도에서 짐 찾고 나와 3층 R구역을 찾아 다녔으나 없다! 물어도 모른다. 터미널2 일까? 올 때는 어찌 가지? 오늘 자래도 못 잘 뻔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터미널 구경과 내일 떠나는 곳만 물어보고 화장실에서 간이세수하고 이를 닦았다. 겨우 콘센트 1개 있는 곳을 남편이 찾아내어 그 옆에서 일기를 쓴다.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여행이다. 어디서 잘 곳도 마땅치 않다.

아나키 : 허페이습肥 도착. 끝없이 이어진 평야. 점점이 마을과 저수지들. 방풍림인 듯 인공 조림한 숲도 많이 보인다. 여름엔 보통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비행기를 나서며 청도 가는 임시티켓을 받았다. 이미그레이션에서 간이입국(임시 허가서)절차를 밟았는데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에게 신속히 연락이 안되었던 듯 카트만두까지의 예약 티켓을 보여 달라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다. 종이티켓은 짐에 부쳤는데 티켓을 패드에 넣어갔기에 망정이지 없었다면 골치 아플 뻔.

다시 국내선 환승을 위해 보안검색을 마치고 사람들 다 모인 후에 비행기에 올라탔다.

두 시간 후 쉹두成都 도착. 카트만두로 연결되는 승객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단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을 따로 태워갈 뿐. 별 거 없이 짐 찾고 바로 검사없이 통과하고 나니 입국장(터미널1)이다. 2층 출국장의 안내소에서 인천의 에어차이나 매니저가 알려주었던 3층의 R구역 87번 카운터를 문의했으나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대신 다음날 아침 카트만두 간다고 하니 에어차이나냐고 묻고 카운터를 알려준다. 잘 곳 없냐고 물었더니 2층 출국장은 두시 쯤 문을 닫고 1층에서 있어야 될 거란다. 이럴 수가. 지금 12시 25분. 출국장에서 유일한 콘센트 앞에서 충전하며 하릴 없이 기다린다.

■ 2013.7.25(목) 청두 - 라싸 - 카트만두

아나키 : 새벽 2시. 공항안내 브로셔를 찾아보니 터미널2 안내가 있다. 3층,R구역 등등 어제 알고 싶었던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다. 터미널1은 홍콩, 마카오, 국제선과 사천 항공의 국내선노선이 사용하고 터미널2는 그 외 국내선이 쓴단다. 무엇보다 우리 티켓에 성도 도착과 라싸로 출발하는 것 모두 터미널2로 되어 있다. 그렇담 왜 터미널1에 내려 준 거지? 어찌라고...

잘 곳을 못 찾아서 벤치에 기대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반대편 대합실 쪽에서 누워 자는 분들 발견, 경아와 그쪽으로 옮겨 발 뺀고 잤다. 출국장이 문 닫기는 커녕, 시원하게 잘만 잤다.

아침, 5시에 스케줄표를 확인하니 7:50분 카트만두행이 떠억 표시가 되어 있고 티켓 카운터도 2가 아니라 터미널1의 20번 카운터다. 거 참. 그러면 티켓 표시와 달리 터미널1에서 출발한다는 건가?

게바라 : 충전 콘센트 있는 자리에 앉아 버티고 있는 것도 졸립고 힘들다. 냉방이 좀 추워서 잠바를 꺼내어 입었다. 목이 칼칼해진다. 약간씩 기대어 졸다가 남편이 누울 만한 곳을 발견해서 갔다. 두 명이 떨어져서 자고 있다. 길게 배낭을 베거나 껴안고 잔다. 뽁뽁거리는 주기적인 소음이 거슬리기도 하지만 누울 수 있어 행복하다. 2시간 이상을 잘 잤다.

5시도 안되어 사람들 오는 기척에 깰다. 앞에 궁덕기(KFC)가 있어 애들이 온다. 남편을 깨워 교대로 이를 닦고 씻는다. 어제 터미널 안내도를 구했는데 2터미널에 R 구역이 있다! 게다가 표에는 2에서 타라고 써 있다! 그러나 화면 뜬 걸 확인하고 온 남편이 1이 맞단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라싸 경유 카트만두가 떴다. 시간이 많아 기다린다. 궁덕기에서 사람들은 아침죽, 패티와 달걀이 끼워진 작은 햄버거를 먹는다. 특이한데 맛은 없어 보인다. 이들의 아침 식사가 이러한지 사람들이 좀 있다.

국내선 라싸 가는 비행기를 탄다. 이제야 서양 사람들이 좀 보인다. 7시 50분 발 비행기가 사람을 타 태우고도 9시에 떠난다. 내리 자다가 출발할 때 깰다. 대기 중인 비행기가 뒤로 8대. 이륙하려고 줄을 서다니!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행기가 요동친다. 구름층이 두껍다. 이래서 대기 중 인가? 계속 벨트 매라는 방송이다.

아침식사로 흰죽을 준다. 간소한 것이 썰렁하다. 계속 졸다 산지 풍경 감상. 척박해 보이는 산머리에 흰색, 회색, 누런 색, 붉은 색감의 머리를 이고 있다. 드라마틱하게 산지가 펼쳐지면서 두꺼운 구름층 위로 산꼭대기가 눈을 이고 솟는다.



구름위로 솟았다 Anakii



라싸 공가 공항 Anakii

라싸는 고도 3500m의 산지. 공가공항으로 가는 동안 높은 산지와 누런 물줄기들, 선상지의 밭과 적은 수의 집들이 보인다. 높아서 몽골처럼 나무가 거의 없다. 공항에 내려 잠시 바깥 풍경을 찍는다. 언제 여길 와 보겠는가. 온도는 겨우 16도로 쾌청한 가을 날씨이다. 짹하고 투명한 대기라니.. 참 다양한 중국의 날씨를 느낀다. 왼쪽 뒷골이 육신, 왼쪽 귀가 멍멍하고 심장이 좀 빨리 뛰다. 별 어려움이 없이 트랜짓 한다. 작은 공항을 뱅뱅 돌린다. 마지막 출국 장소에 티벳풍의 물건들을 판다. 티벳을 이용

한 장사를 한쪽이 한다. 향을 피워 놓아 냄새가 난다. 남편도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 술 먹은 느낌이라 트레킹이 걱정된다고. 고혈압 증세 같기도 하고 뭔가 붕 뜬 상태? 기내에 들어와 시간이 흐르니 나아진다. 먹을 걸 겨우 오향 땅콩과 물을 준다. 맛이 강해 혀가 얼얼하다. 오른쪽에 앉아야 히말라야의 산들이 보인다. 구름 위로 솟아 장관이다. 운이 좋아 구경을 다 했다. 남편이 큰 가방 안에 다 만들어 놓은 비자 신청서를 두었다. 망했다. 긴 줄을 서야 하다니... 한 쫓 모자라는 아이디어...

아나키 : 성도공항 출국장. 이미그레이션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옆으로 빠져나가 보안검색대로 간다. 국내선과 국제선 승객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라싸까지는 국내선으로 간다.

라싸 입국장. 인터내셔널 트랜짓으로 나가서 좁은 공항을 뱅뱅 돌다 임시 티켓을 받고 immigration에 도착했다 간단한 하는 보안 검색 후 대합실로 나가는데 나랑 경아씨는 뭔가 원활치 않은지 수속이 시간이 꽤 걸렸다. immigration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내용을 평가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인인 걸 확인하고 한국어로 안내멘트가 나왔다.

계바라 : 1시간 30분 후 카트만두. 10시 40분이다. 수도라기에는 허름한 건물들이 많다. 비행기 뒷문을 열어 주어 내려와 버스를 탔다. 날씨가 맑고 좋다. 짙은 하늘은 기대도 안 했었다. 버스에서 내려 빨리 걸어 비자도 첫 번째로 신청 성공! 다행히 손님이 우리 비행기 사람들뿐이다. 비수기 손님의 특혜다. 보통 3시간 걸린다는데... 비자를 만들면 입국도 그냥 통과시킨다. 이렇게 간단한 입국이라니!

돈 20불 환전하고 출국장에서 따라 붙는 택시 기사들을 만난다. 나가서 출구 오른쪽에 되돌아가는 택시를 잡았다. 적정가는 대개 300R인 듯. 버스 터미널 쪽은 400이라고 해서 그냥 타멜로 간다. 정겨운 인도풍의 거리들이 익숙하다. 물론 사람도 많고 매연도 심하다. 인도보다 더 옛스럽고 상상 속의 카트만두와 비슷하

다.

타멜 초우크에 내려 부다랜드 호텔을 찾아 간다.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눈길을 끈다. 인도만큼 물건 조잡하지는 않은 듯. 남편이 구글맵을 이용하여 잘 찾아간다. 부다랜드의 방은 850. 다른 곳을 더 찾아보려고 옆의 피크 호텔에 갔더니 1600이란다. 같은 건물인데? 붓다로 잡고 내일 포카라 가는 에어컨 버스 표도 샀다. 100불 환전 후 지불했다. 팬이 있는 방은 괜찮다.

샤워 후 나가서 타멜의 양린 티벳탄 식당에 간다. 분위기 좋고 현지인이 많다. 닭고기 모모(130), 버팔로 특파(130), 돼지 초우멘(100)이 모두 담담하고 맛이 깨끗하다. 모모는 우리 식으로 만들고 10개를 준다.

아나키 : 인도여행 간 게 2001년이니까 무려 12년 만의 모모와 특파다! 짐을 숙소에 두고 흥분하게 나와 카트만두의 티벳탄 식당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의 현실감을 조용히 느껴 봤다. 드디어 네팔에 왔구나.



타멜의 양린티벳탄식당 Anakii

게바라 : 슈퍼에서 Nepal-ICE아이스 맥주와 작은 코코넛 과자를 샀다. KC 빵 집에서 산 애플파이는 계피가 아닌 큐민 향이 독특하다.

걸어서 복잡한 시장통을 지나 두르바 광장에 쉬러 간다. 정신을 쏙 빼는 교통 상황과 많은 사람, 경적 소리가 섞여 몽롱하다. 광장은 입장료를 내야 해서 그냥 돌아온다. 뒷골목 집들은 낡고 초라하다. 티벳, 인도계가 섞인 사람들의 얼굴. 푸른 망고 2kg을 사서 돌아온다. 소나기가 약간 뿌리다 말고 서늘한 바람이 분다. 샤워 후 망고를 정신없이 다 먹었다. 새콤달콤하고 육질이 있어 잔지바르의 홍시 같은 노랑 망고보다 맛있다.

2시간 자고 6시에 쓰촨음식 먹으러 창첸 레스토랑에 갔다. 고추잡채와 밥을 시켜 남편이 거의 먹었다. 생후추가 얼얼하고 특이하다. 망고 1kg사고 선선한 공기를 맞고 걷다가 소나기가 온다. 우산 하나로 겨우 버티며 숙소로 왔다. 저녁에 비가 온다더니 7시 반에는 오는구나. 저녁을 빨리 먹어야겠다.

남편과 론리와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숙소를 찾아 살피고 술을 사러 나갔다. 밖은 비가 그치고 무척 선선하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의외의 멋진 날씨이다. 우기인데도 보송하다. 길은 많이 젖지 않았고 비는 스콜처럼 한차례 퍼붓고 지나간다. 먼지와 매연을 깨끗이 처리해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비다. 11시에 먼저 잔다.

■ 2013.7.26(금) 카트만두 - 포카라

선풍기 때문에 살짝 목감기가 들었지만 도톰한 이불을 덮고 잘 잤다. 남편은 시원하고 쾌적하다고 좋아한다. 5시에 일어나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애플파이를 먹고 갈 준비를 한다. 남편을 깨웠더니 조금만 더 잔다고 한다. 어제 산 술을 다 먹었네! 고도가 있는 곳에서는 적게 마시면 좋을 텐데.

짐 챙기고 있는데 6시 10분에 깨우러 왔다. 30분에 내려 가 매니저 오빠에게 카트만두에 며칠 정도 있으면 여행 일정이 적당한가 남편이 물었다. 우리 여행일수를 묻더니 일정을 아예 짜 준다. 날짜를 세어 가며 너무 열심히 써주는 모습에 웃음이 난

다. 참 고맙다. 써준 종이를 잘 간수하고 인사한 후 일하는 청년과 버스 타는 곳까지 걸었다. 차도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우르르 뛰기에 물었더니 군인들이란다. 중간 정도 크기 버스에 벌써 사람들이 많다. 바나나와 빵을 샀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가 7시에 모두 출발한다. 손님 중에는 중국 애들이 많다. 복잡하고 좁은 길에 차들이 교행하며 매연을 뿜어 대며 빵빵거리니 정신없다.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사람들 사는 모습이 좀 초라하다. 길이 좁아 교행 하느라 한참 서 있기도 한다. 서비스로 큰 생수를 한 병씩 나눠 준다. 에어컨이 작동될까 싶은 차였는데 제법 시원하게 나온다. 산 길을 굽이굽이 감돌아 차가 천천히 달린다.



바바트래블 버스. 칸티팻도로에 아침에 세워진 포카라행 버스들 Anakii



길가휴게소 오이부스 Anakii

열 시 반에 아침을 먹으라고 내려 준다. 우리는 한 접시에 초우멘, 볶음밥, 야채튀김 4개를 시켰다. 200R 인데 맛이 별로 없다. ‘한 끼 때운다’ 나 ‘배를 채운다’는 말을 실감한다. 빵과 바나나도 별로 맛이 없다. 한 시에 또 다른 곳에 서서 오이를 사 먹는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도 한쪽 사먹었다. 소금, 설탕, 매운맛 나는 가루를 발라서 먹는다. 제법 시원하고 맛이 좋다. 아래쪽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느라 바쁘다. 우리는 튀김 만두를 먹었다. 외곽지역 사람들은 계단식 논에 벼를 심고, 밭농사로 옥수수를 많이 심는다. 좀 적적하고 한가로워 보인다. 두시 반에 pokhara에 도착 했다.

빼끼아저씨가 우리에게 그린랜드 호텔을 보여준다. 싫으면 택시비 150을 주고 다른 데로 가란다. 거리가 2킬로 정도 된다. 800 부르는 것을 700에 들었다. 샤워 후 다른 곳을 구경 하러 나간다. 폐와호수는 초록색 물색, 그리 맑지 않고 부레옥잠이 많이 떠 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다음에 보트를 타기로 한다. 길가를 슬슬 걸으며 주변을 살핀다. 너무 뜨거워서 우산을 쓰고 걷는다. lotus Inn은 평범한 숙소였고 피스 아이 게스트하우스는 꽤 안정된 분위기이나 800 정도로 방은 좀 작다. 우리 숙소도 나쁘지 않다. 특히 정원이 예쁘고 주변이 한가하다.

그 근처에서 남편이 산촌다람쥐를 찾는다. 내가 우리 숙소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소비파네에서 정확히 물어 찾아갔다. 아저씨가 인상도 좋고 친절하다. 푼 힐은 가이드 없이도 충분히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거머리도 붙으면 적당히 털어내라고 한다. 옷차림이 가벼워도 되고 요즘은 별로 춥지 않다고 한다. 내일 아침 열 시 전에 와서 공원에 입장할 비용을 지불하면 다 준비해 준단다. 룸비니와 치트완 쪽은 40도가 넘는단다. 대단한 날씨다.

소비파네는 नेपाल인이 만드는 한국 음식점이다. 유명한 김치 볶음밥과 콩치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먼저 창을 마셨다. 김치와 깍두기가 서비스로 나온다. 김치 맛이 아주 좋고 제대로 만들었다. 창은 시원한 막걸리 라시를 섞은 듯한 달콤한 술인데 음료에 가깝다. 1리터에 100루피. 너무 싸고 좋다. 김치 볶음밥 맛이 너무나 좋다. 콩치 김치찌개도 많은 양을 주고 참 맛있다. 배부르고 푸짐한 식사였다.

가게에서 비웃 2개, 독일빵집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샀다. 망고를 찾아 헤매다 작은 시장통을 발견하여 망고 2KG을 샀다. 아줌마가 열심히 골라 담아 주신다. 더 위에 지쳐 남편은 다운됐다. 주스가게에서 파인애플, 레몬을 시켰는데 양이 많아 겨우 다 먹었다. 숙소에서 빨래를 걷고 샤워하니 살 것 같다. 둘이 맛난 망고를 다 까 먹고 남편은 창을 더 사왔다. 트레킹을 내일 갈까 다른 것을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산을 오르기로 했다. 자주 전기가 나가고 나면 어둠 속에 별들이 대단하다.

2. 안나푸르나 트레킹 Poonhill Trek

* 히말라야 : 히마(Hima,눈) + 알라야(Alaya,사는 곳) 곧 눈의 거처.

- 2013.7.27.(토) 포카라-나야푸르(1070m)-올레리(1960m)



그랜랜드숙소에서 마차푸차레 Anakii

아침 6시에 일어나 일기를 쓴다. 어젠 전기도 자주 나가고 피곤해서 11시에 잤다. 창밖으로 마차푸차레로 여겨지는 산등성이가 보인다! 그 옆에도 여러 능선이 나타났다. 꼭대기에 눈을 이고 있는 장엄한 모습이다. 이 숙소가 이렇게 멋진 곳이었다니

정말 괜찮다. 남편을 깨워 옥상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곧 구름이 몰려와 가려진다. 간밤에는 장대비가 역수로 쏟아지고 시원해서 잘 잤다. 산에 들고 올라 갈 배낭과 말길 것을 위해 물건을 정리하여 나눈다. 최소한의 물건을 넣어도 큰 것이 6KG, 작은 것이 4KG는 된다. 이 숙소에 배낭을 하나 맡기고 돌아오면 다시 여기에 묵을 것이다. 8시에 나가서 산촌 다람쥐에 갔다. 팀스와 퍼밋용으로 8200R을 주고 예약하고 여권 사진 4장을 맡겼다. 열 시 반에 나아푸르로 가는 택시를 불러 주겠다고 하신다. 독일 빵집에서 비상용으로 빵4개를 사고 돌아온다. 8시에 문을 연다더니 소비따네 식당은 아직 문을 안 열었다. 소비따는 아이 이름이고 주인은 한국인 여행자에게 요리법을 배웠다고 한다. 계속 먹고 싶은 맛이다.

9시가 다 되어 소비따네에 갔다. 돼지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는데 맛있다. 옆자리에 우리나라 여성과 네팔사람이 놀러와 있다. 한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며 인도와 네팔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 부부에게 들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이드인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단다. 창과 렉시를 사서 담고 짐을 챙겨 나왔다.

환전 200불을 더하고 산촌다람쥐에 10시 20분 경 갔다. 그 시간에서야 우리 여권을 가진 사람이 발급 수속을 하러 떠난다. 택시도 이미 와 있는데 마냥 기다린다.

11시 20분에 발급받은 증서를 가지고 와서 총알택시를 타고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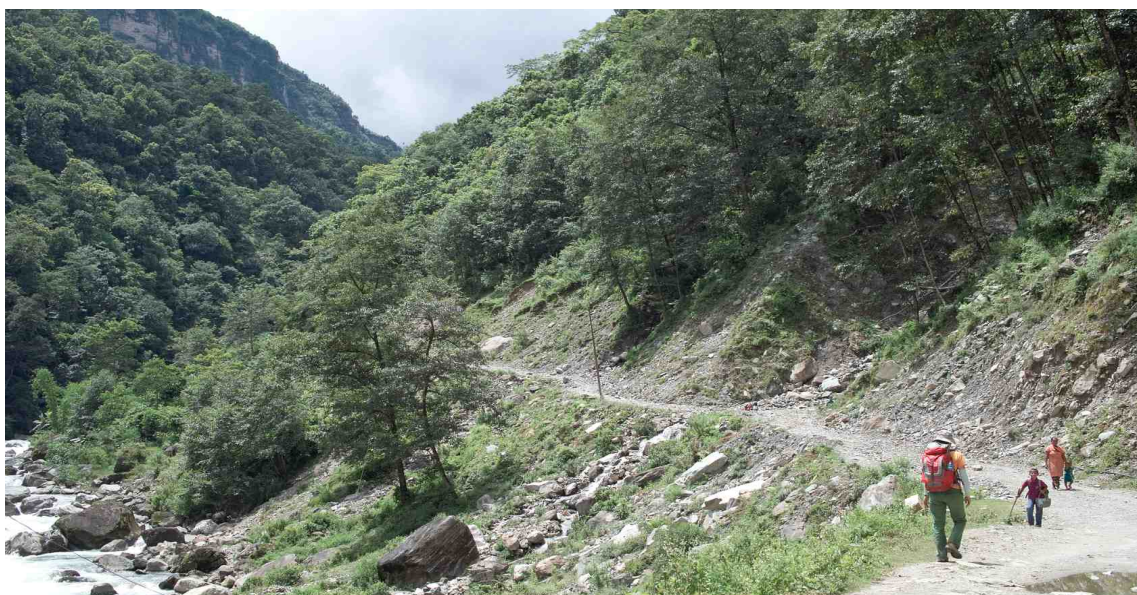
잠시 물 두 병을 산 후 나아푸르로 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소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힐 뻔 하기도 하고 추월하다 사고 가능성도 컸다. 아저씨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길래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뻗었다. 굽이굽이 산길을 감돌다 내려가서 1시간10분 만에 도착하여 12시 반에 산행을 시작한다.

마을을 지나서 부터 어디로 갈지 난감하여 외국할머니와 가는 포터에게 물었다. 팀스 체크하는 곳과 다리 건너 퍼밋 사무소에서라도 도장을 받는다. 마을 지나 양방향 길에서도 포터가 오지 않아 남편이 되돌아가서 묻고 왼쪽 방향으로 간다. 이제부터 길을 따라 오르기만 하면 된다. 남편과 1시간씩 배낭을 교대하기로 했다. 오르막길에서 산사태로 유실된 도로는 위험해 보였다. 이래서 원래는 힐레 마을까지 오르는

짚이 끊겼다.



비레탄디, 팀스체크부스 Anakii



트레킹 초입 Anakii

당나귀들이 하염없이 짐을 나르고 있어 길에는 똥이 많다. 조심해서 가야 한다. 젊은이들은 우리 앞을 빨리 지난다. 햇볕이 너무 지치게 만들어 오르막길에서 힘이 많이 든다.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얼굴은 별장다. 남편이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지 바로 내려가자고 한다.



힐레로 가는 길 Anaki

부지런히 걸으려 해도 걸음이 빨리 떼어지지 않아 남편이 큰 배낭을 계속 메게 되었다. 길이 오르막으로 접어들면서 계곡이 점점 멀어져 아래로 보인다. 얼굴이 달아 오르고 숨쉬기 힘들어 하니 남편이 코로 깊이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뿜기를 반복하란다. 조금씩 쉬어가며 가보는 데 까지 가기로 한다. 길가에 간간히 식당과 롯지들이 보인다. 상상했던 오지의 길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 동네길이다.

가다가 쉬는데 폰 힐에서 내려오는 우리나라 아저씨를 만났다. 한국인을 처음 봤다고 좋아 하신다. 용기 내고 오르라고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길이 유실되어 짚이 안 다닌다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다. 가이드가 울레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힘을 내어 오른다.

아나키 : 별이 뜨겁다. 옷이 땀으로 뻘뻘이 되었다. 그래도 날은 꽤 덥지만 그늘에 가니 상쾌하다. 비레판피에서 힐레로 오르는 길은 원래 짚이 다니는 큰 찾길. 우리나라의 큰 임도와 같다. 경사는 크지 않지만 덥기도 하고 오랜만의 트레킹이라 마늘님이 꽤 힘들어한다. 난 이번 여행을 대비해 처음 신은 아쿠아 트레킹화가 원발 엄지발가락을 계속 쓸어내는 바람에 밴드를 갈아붙이기를 몇 번 반복했다. 사실 이 발 상태

로 며칠간의 트레킹을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수도메 Sudome 에 오니 숙소가 몇 개 보이고 너른 평지가 나온다. 급히 흐르던 계곡물은 조용하고 편안해졌다. 설 곳만 보이면 쉬기를 반복하며 오르니 숨차지는 않는다. 마눌님 상태는 힐레 도착하면서 숲길로 들어서자 많이 좋아졌다. 힐레까지 왔으니 내려가기에도 애매한 상황. 다시 물으니 계속 올라가자고 한다. 나도 사실 100% 자신 있는 건 아니어서 마눌님이 내려가자 하면 큰 불만 내려 갈 거였지만, 올라가자 하니 힘을 낸다.

계바라 : 큰 길이 끝나 오솔길. 계곡 쪽으로 가며 길 위로 흘러내리는 물을 볼 때마다 세수하고 손수건을 적셔 목에 걸친다. 한참 걷다 계단 길로 바뀌고 짧은 돌계단의 끝에 나타난 마을이 힐레.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비옷을 꺼내 입었다. 산책길 느낌의 오솔길에 시원한 비가 오니 티케둥가 Tikhedhungga 까지는 걷기 좋다. 20분 만에 도착했다.

외국인들 일부는 여기에서 잔다. 4시 반인데 숙소아저씨도 자고가라 하고 비는 오는데 어둑해질 거다.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한다. 굶어지는 빗발도 고민이지만 심한 계단길이다. 그런데 해가 날 때는 몹시 힘들어 하던 내가 차라리 비가 오니 낫다. 어두워 도착 하더라도 랜턴 켜고 가기로 한다.

엄청난 계곡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을 지나 계단길. 남편이 이곳이 악명 높은 3400개의 계단길이란다. 비가 오지만 거대한 나무 밑에 보송한 돌이 있다. 비를 피할 곳이 있으니 빵이나 먹고 오르자면서 치즈빵을 절반씩 먹는데 네팔인이 지나가며 빨리 가자고 한다. 남편이 재네가 가자고 할 때 빨리 같이 가잔다. 중국인들도 우르르 한 팀이 온다. 재빨리 따라붙어 간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쉬엄쉬엄 계속 오른다. 중간 중간 설 숙소들이 많이 나타난다. 남편이 어느새 울레리로 주소가 바뀌었다. 어느 집 앞에서 잠시 쉬며 물을 먹는데 자고 가라고 한다. 울레리에 갈 거라니까 "여기도 울레리인데?" 하신다. 맞는 말이다.



1900미터의 옥수수밭. Anakii

안개가 계곡 밑에서 빠르게 피어오르고 안개를 피하기 위해 다시 오른다. 안개가 다시 사라지고 좀 환해서 얼굴을 씻어 가며 부지런히 오르다 보니 드디어 울레리! 7시에 도착했다. 출발한 지 6시간 반 걸렸다. 비가 제법 내린다.

'안나푸르나 뷰포인트 GH'에 들었다. 방은 아주 작고 침대 2개. 창 전망이 좋다. 두툼한 이불도 있고 의외로 좋다고 느꼈는데 핫 샤워도 된다. 얼른 씻고 밥 먹으러 가서 일기를 쓴다. 달빳과 버섯 치즈 볶음면. 한참 기다려서야 나온다. 달빳은 거의

우리 입맛. 녹두국, 감자조림, 매운 콩장이다. 볶음면도 담담하고 맛있다. 내친 김에 밀크티와 우유까지. 비록 분유를 썼지만 맛이 좋다. 몰래 식탁 위에 있는 꿀도 2스푼 퍼 먹었다. 힘이 난다. 일기를 마저 쓰고 빨리 자야겠다. 목적지인 여기까지 온 것이 신기하다.

■ 2013.7.28(일) **올레리(1980m)-고레파니(2830m)**

* 27~28일 이동 거리 : **나야플-고레파니 약 12마일 (19km)**

아침 5시 기상. 밖으로 나가니 안나푸르나 남봉이 보인다. 마차푸차레보다는 덜 신비하지만 역시 신성해 보이고 장관이다. 남편을 깨워 한참 쳐다보고 사진 찍었다. 둘 다 샤워 겸 머리를 감고 화장실도 다녀왔다. 아침을 주문해 놓고 동네한 바퀴. 아기자기한 동네를 구석구석 다닌다. 숙소의 밖에 전망이 너무나 멋진 곳에 테이블이 있다. 안나푸르나를 정면으로 보고 뒤로는 우리가 올라왔던 지역이 넓게 펼쳐진다.

시킨 지 한 시간이 넘어 음식이 나왔다. 주문이 늦던 빠르던 함께 나온다. 남편이 프랑스 애들의 가이드 아저씨에게 오늘 갈 길을 확인했다. 고레파니까지 같이 가게 생겼다. 이 팀은 어제 8시에 포카라에서 출발하여 네 시에 들어왔단다. 우리가 11시 반에 출발하여 7시에 들어왔다니까 놀란다. 그래서 우린 점심을 안 먹고 왔다니까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맛난 밥을 먹는다. 역시 달빳은 반찬만 조금 바뀌고 맛이 좋다. 인도 탈리는 먹기 힘들었는데 달빳은 녹두죽 맛이다. 반찬도 입맛에 맞고 우리에게는 딱 최고다. 짜아까지 한잔씩 따끈하게 먹었다. 이 집은 식사, 숙소, 샤워 모두가 만족스러웠다.



안나푸르나 뷰 레스토랑 Anaki

짐을 챙기고 출발하면서 숙식비 일체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핫샤워가 공짜다. 게다가 먹는 물을 체에 걸러 담아 가게 해 주었다. 물맛이 좋다. 정수(약품처리)된 물을 담으면 60루피지만 그냥 먹는 물은 공짜. 두 병을 채우고 가장 먼저 출발한다. 다른 사람들과 건너편 숙소의 중국팀도 따라 떠난다. 우리 목적은 쉬면서 가기다.

중간에 노닥거리면서 충분히 땀을 식히고 천천히 걷는다. 폭포처럼 물이 내려오는 풍광들이 종종 나타난다.

반탄티Banthanti 까지는 30분 정도 걸렸고 중간에 어느 집 벽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볼 수 있었다. 마을 지나 작은 폭포가 내려오는 곳에서 발을 담그고 쉰다. 물이 무척 차가워 피서 온 기분이 되고 정신이 맑아진다. 물이 흐르는 곳을 지날 때는 손수건을 적셔 얼굴, 목, 토시 낀 팔을 다 적신다. 그러면 아주 시원하다. 놀며 오르니 전혀 힘들지 않아서 남편이 두 시간 정도 큰 배낭을 뺐고 이어서 내가 맨다.



낭게탄티 가는 숲길 Anakii

숲길은 습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일본만화에 나오는 정령의 숲 같다. 정말 멋지고 많은 식물들이 자란다. 나무에도 가득 이끼가 끼고 란 종류의 꽃과 고사리들이 살고 있다. 손으로 이끼 낀 나무의 몸통을 만지면 축축하고 시원하다. 가상현실 같은 풍경 속에서 뭔가를 만져보거나 찬물로 씻어야 현실감이 느껴진다.

빈 가게가 있는 곳에서 빵을 먹고 쉰다. 바람이 정말 시원하다.

올라가며 큰 폭포를 지나고 더 올라 낭게탄티Nangge Thanti. 프랑스 애들은 여기서 점심을 먹는데 우린 마을 끝 집에서 짜아 두 잔을 시켰다. 생강과 민트 향이 난다. 집집마다 짜아 맛이 다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우의를 입었다가 조금 그으면 벗기를 반복한다. 남편은 눈 아래가 약간 캄캄해지며 반짝이는 게 보인다. 심호흡 하며 천천히 간다.

아나키 : 이게 고산증인가? 심하지는 않지만 발을 디딜 때 마다 어지럽고 살짝 눈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걸을 때 눈은 뜨고 있지만 시선의 저 아래쪽 부분 자글거리는 느낌이 든다. 처음엔 내뱉는 숨을 길게 했는데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들숨을 날숨의 두 배로 하여 공기를 더 많이 받아들이며 걸어 보니 좀 낫다. 증상은 오래 가지는 않았다.

게바라 : 숲은 더 어둡고 깊고 습해진다. 고목의 가지마다 축축한 이끼가 가득하고 귀신 나올 듯 어둡고 신령스럽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장롱 문을 열고 나가 펼쳐지는 상상 속 숲의 세계같은 비현실적인 광경이다. 가끔 나무의 이끼들을 손으로 만지면 시원하고 물기가 배어나온다. 중간에 숲에서 앉아 쉴 때 귀엽고 까만 자벌레 같은 것들이 손에 오른다. 자로 재는 듯 걷는 품이 무척 귀엽다. 우리나라의 자벌레와는 다르게 생겼다. 남편이 애들은 다리가 없단다.

참참이 올라 고레파니 Gorepani 에 도착했는데 큰 숙소들이 많으나 문을 열지 않았다. 지나가던 가이드 아저씨에게 물으니 이곳은 아랫마을이고 10분 후 윗마을에 도착하는데 주로 거기서 묵는단다.

비를 맞으며 오른다. 몸이 가뻐하여 마음 같으면 폰 힐도 다녀올 듯한데 날씨가 안 좋다. 윗마을에 도착하여 퍼밋 용지에 싸인을 받았다. 경찰이 해준다. 왔던 곳과 갈 곳을 적어 조난에 대비한다. 다른 팀의 포터가 내일 아침 날씨가 안 좋으면 폰 힐에 오를 필요가 없고 하루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알려준다.

숙소들을 살피면서 정상을 넘어 내려가자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남편이 바로 이집이란다. 까말라 롯지. 2시에 도착했다. 8시 15분에 출발하여 두시에 왔으니 다섯 시간 반 정도를 놀며 온 셈이다. 동네아줌마들이 모여 카드 삼매경 중이다.

위층 모서리 끝방, 두 면에 거대한 창이 있다. 더블베드도 포근한데 숙비는 겨우 100루피. 원래 200이지만 비수기라 늘 가격표 보다 100이 싸다.

점심으로 Mixed fried rice와 달걀을 시켰는데 녹두죽이 조금 짠다. 반면 치즈가 든 볶음밥은 맛이 예술이다. 최고급 맛의 치즈로 진하고 풍미가 좋다. 맛있게 먹고 올라와서 1시간 반을 잤다. 4시 반에 밖으로 나가니 또 비가 온다. 아래 레스토랑에 가서 짜아 2잔. 할머니는 천을 짜고 계시고 외국인 둘은 패드로 책 삼매경.



까말라로지의 방 Anakii

다시 왼쪽 마을을 구경하고 숙소에서 저녁으로 피자과 बे지 볶음밥을 주문했다. 숙소에 와서 일기 쓰고 쉰다. 이 집에서 가장 전망 좋은 방이고 다른 방은 별로이다. 슬쩍 본 방이 어두웠다. 방에 누워 있다가 살펴보니 창틀과 창문 사이에 틈이 커서 팔 토시, 손수건, 얇은 수건을 동원하여 꼼꼼히 막았다. 틈이 있으면 밤엔 추울 거다.

7시넘게 누워 있다가 30분에 내려가니 미국애와 가이드는 카드삼매경에 빠졌다. 동네 아줌마들은 다 갔다. 운치 있게 촛불을 켜고 카드라니. 돌이 킬킬거리고 난리다. 우리도 촛불과 음식을 갖다 줬는데 피자는 동판에 자글자글하게 2인분 분량정도가 온다. 토핑과 맛이 최상이다. 지금까지 이런 피자를 먹어 본 적이 없다. 3천 미터에서 최고의 피자라니. 두꺼운 토마토, 맛난 치즈, 말린 로즈마리, 바삭 촉촉한 도우 맛에 남편과 감탄하며 먹었다. 남편은 내일 아침 다른 피자를 먹겠다. 볶음밥은 두 번째라 맛있었지만 조금 힘들게 먹었다.

아나키 : 방의 두 면에 창이 있는 방은 여기뿐이다. 가장 좋은 방이지만 겨울엔 아마 가장 추운 방이 될 테지. 1층 가운데 구석방은 완전 창고 같은 분위기지만 아마 그곳이 겨울엔 최고의 방이 될 테고. 고도 2900m의 고산마을이라 해발 고도에 비해 18도나 낮다! 가장 덥다는 치트완이 35도인데 그럼 여긴 한 낮에도 20도. 밤엔 더위를 많이 타는 나도 두꺼운 이불을 끌어안고 잤다.

계바라 : 주방 옆 조그만 물통달린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이빨 닦은 후 촛불 들고 올라왔다. 창을 밀폐시켜 포근하고 두꺼운 이불이 따뜻한데다 촛불이 운치 있다. 이렇게 일기를 쓸 수 있을 만큼 밝다. 아까 미국인에 가이드 말을 살며시 듣자하니 네 시에 준비하고 폰 힐에 오른다 한다. 우리도 같이 가야겠다. 8시 반인데 잘 준비를 한다.

■ 2013.7.29(월) 고레파니에서 타다파니까지

* 이동 경로 : 고레파니 - 데우랄리(3100m) - 반탄티 (3180m) - 타다파니(2630m)

* 이동 거리 : 고레파니 ↔ 폰 힐 왕복 1마일, 고레파니-타다파니 5마일 (10km)

계바라 : 새벽 3시 50분. 방 창에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달빛에 보인다. 사방이 환하다. 간밤에는 창을 그렇게 단속하여 막았는데도 추웠다. 잠도 설치고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 남편이 촛불을 켜다 손을 데었다. 성냥이 너무 작다.

겨울 타이즈를 바지 속에 끼입고 단단히 옷을 입은 후 4시 반에 숙소앞에서 기다린다. 4시 40분 어제 그 애들과 출발. 애들이 너무 빨라 뒤로 처진다. 반달이 밝아 길을 밝혀주어 랜턴이 필요 없다. 입장료 받는 곳에 사람이 없다. 25R 인데 비수기라서 없나?

아나키 : 청명한 달밤이다. 달빛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다. TV의 사극에 보면 달밤을 나타내는 데 꽤 밝아서 조명 탓인가 했는데 진짜 밝다. 좀 큰 글씨의 책을 읽을 정도다. 이런 달빛 조명에 저 건너 안나푸르나 남봉이 우뚝 서 있다. 카메라 삼각대가 없는 게 안타깝다. 이 빛 아래 등산한다면 전혀 걱정이 없겠다.

폰 힐로 올라가는 길은 걱정과는 달리 동네 뒷산 길처럼 한길이다. 새벽등산이라 작은 랜턴은 필요하겠지만 길 잃을 걱정은 없다. 길에 널린 당나귀 똥도 여기엔 없다. 폰 힐 정상에는 사람 사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짐 끈 당나귀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겠지.

계바라 : 한참 올라 멀리 탑이 보이기에 다 왔나 했는데 거기서 다시 15분이라는 표지가 보인다. 이미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앞질렀다. 초지에는 꽃들도 보인다. 랄리구라스 숲을 지난다. 이 구간이 거머리 출몰 지역이라는데 새벽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걷는 거다.

15분은 커녕 30분을 씩씩거리고 오른다. 새벽에 고도 340m를 내리 계단으로 오르다니... 힘들다.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좀 와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다올라기리, 널기리,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 남봉, 히운출리, 마차푸차레 등 유명한 여러 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른 방향은 구름바다. 8000m 넘는 봉우리들과 눈 덮인 산은 신성하게 느껴진다. 전망대에 올라 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다 배터리가 다 되었다. 남편이 여분의 배터리를 안 가져 와서 꺾다 꺾다를 반복하며 몇 장 더 찍는다. 앞으로도 이런 장관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 7시가 되어 내려왔다.



다올라기리 Anakii



3210m. 드디어 푸 힐이다 Anakii



다울라기리를 배경으로 Anakii

숙소에서 커리와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너무 짠다. 아줌마가 염도조절을 잘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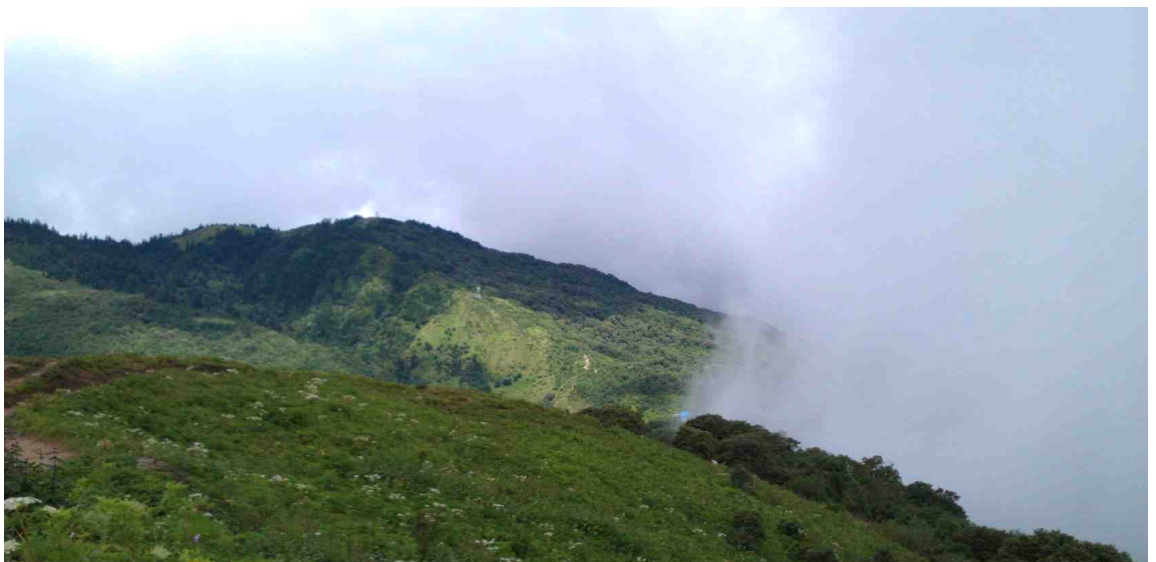
한다. 티셔츠 몇 개를 빨고 마르지 않아서 짐을 챙겨 출발한 게 8시40분.

물이 졸졸 흐르는 숲을 지나 초지에 꽃이 핀 곳에서 잠시 쉬는데 등에 들이 출몰한다. 주변은 탈리구라스 숲. 꽃피는 계절엔 장관일 것이다. 다시 오르니 능선에 앉아 설 만한 곳이 나온다. 오른쪽으로 돌이 깔린 길이 보여 좀 내려가다 보니 방향이 아닌 듯싶다. 바로 앞에 푼힐전망대가 보인다. 다시 반대방향으로 걷는데 길이 좁고 진창이다. 이 방향이 맞나 싶어 남편이 핸드폰으로 방향을 체크해 보았다. 옳게 잡은 듯하다.

축축한 진흙길은 설 곳도 마땅찮고 무엇보다 등에가 계속 따라온다. 잠시라도 서면 앵앵거리고 따라붙어 쏘려고 한다. 남편이 계속 풀잎사귀로 털어주며 따라왔다. 숲길도 그렇지만 능선 초지 길에도 더운 열기에 등에가 따라붙어 장난이 아니다.

오르막의 연속인데다 3천 미터를 넘어 혹 하는 더위에 산을 오르니 정신이 혼미하고 뒷골이 육신거린다. 앉을 수도 없어서 완전히 지쳐버렸다.

계곡에서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새벽에 푼 힐을 오르기까지 했으니 더 어렵다. 몇 발자국 떼고 서기를 반복한다. 아래쪽으로는 가파른 경사면에 초지와 꽃들이 펼쳐진다. 능선 위 계단을 올라 꼭대기에서 잠시 쉰다.



멀리 푼 힐이 보인다. Anakii

아나키 :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니 탁 트인 개활지다. 초지 아래쪽은 거의 천 미터 높이의 절벽. 웅장하다. 게다가 만일 구름이 없다면 북쪽으로 안나푸르나 남봉의 자태가 손에 잡힐 듯 드러났겠지만 안타깝게도 머리 위로는 안개와 같이 구름이 짙다. 남쪽으로는 구름이 없어 멀리까지 보인다. 거대한 거인의 등에 올라탄 미생물이 된 느낌.

흐르는 물이 없어 몸을 식히지 않고 쪽 올라왔더니 확확 거리는 더위가 느껴진다. 마눌님은 초죽음상태. 충분히 쉬다 가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등애가 계속 쏘아 대는 통에 제대로 쉬지 못해 더한 것 같다. 고사리 같은 풀 가지를 꺾어 빗자루처럼 만들어 등애를 계속 쫓아내며 걸었다. 모기기피제라도 잔뜩 뿌렸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포카라 산촌다람쥐에 둔 배낭 안에...

계바라 : 다시 숲으로 접어들어 축축한 길을 걷는다. 나무 등걸에 앉아 쉬려니 까 이번엔 까맣고 고물고물한 거머리들이 내 신발을 타고 올라서 남편이 정신없이 떨어낸다. 어제는 자벌레라고 손등에 올라가도 예뻐했는데 그게 거머리였다! 남편이 다리가 시원하다더니 바지 속 피부에 붙어 있는 거다. 감촉이 차갑단다. 이때부터는 거의 앉지도 못하고 거머리가 붙어 있나 계속 살펴야 했다.

능선을 타다가 힘들어서 젖은 티셔츠를 꺼내 머리에 덮었다. 산의 북사면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은 방향이 맞나 걱정이 되나 보다.

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내려오다 건물 두 채가 보였는데 여기가 데우랄리 Deurali 다. 11시다. 어딘가 눅고 싶기만 하다. 한참을 내려와도 3100m이니 그 언덕은 얼마나 높은 곳이었단 말인가.

찌아 두 잔을 먹고 눅고 싶지만 다시 내려간다. 싸늘한 공기가 온다 싶어서 옷을 꺼입고 내려가니 가파른 폭포 옆길이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길에 물이 흘러넘치기도 하고 물소리도 크다. 찻집 할아버지가 타다파니는 세 시간 반탄티는 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내려가기가 만만찮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무릎이 아프니 천천히 간다. 그래도 내려가니 왼 머리 뒤통이 옥신대던 것이 덜하고 감기기운으로 멍한 두통만 남았다. 계곡의 차고 습한 바람 때문에 추워서 점퍼를 입어야 한다.

절벽길을 내려가서 칼리구라스호텔이라는 작은 숙소에 도착했다. 잠시 독일빵집의 땅콩쿠키를 남편이 먹자고 한다. 아침 피자가 아직 소화되지 않아 먹고 싶지 않다. 그래도 두통을 감해보려고 작게 꼭꼭 씹어 반개를 먹었다. 정말 귀한 과자다.

길에는 거대한 나무가 무너지고 유실되어 쏟아진 흙벽들이 종종 보인다. 심하게 가파른 곳은 설치된 바를 잡고 조심스레 천천히 내려간다. 거의 고도 500m쯤 내려가는 것 같다. 길가에는 조그맣고 얇게 부서진 은빛 돌이 많다. 돌은 평평해서 지붕 재료로도 쓰이고 계단도 이것으로 만든다.



비가 내려 우비를 꺼내 입었다. 반탄티에 도착했다. 마을이 보이니 반갑고 가급적 숙소를 잡아서 쉬고 싶다. 그러나 열려 있는 숙소에는 손님도 없고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커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숙소앞에 앉아 비가 좀 굻기를 기다린다.

반탄티 마을 옆길을 지나 거대한 랄리구라스 숲에 왔다. 가지들이 뻗어 있는 계손처럼 보이고 이끼가 많다.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 핸드폰으로 찍는데 상태가 별로다.

어두운 숲을 나서니 밝은 길이 열리고 좁은 길 왼편으로는 가파른 산이다. 갑자기 돼지가 짹짹대는 소리가 난다. 산의 랄리구라스 나무가 흔들려서 쳐다보니 원숭이들이 가지가 휘어지게 흔들며 돌아다닌다. 나는 겨우 3마리 정도를 보았는데 남편은 7, 8마리 정도 보았단다. 털은 거의 희고 얼굴은 까맣다. 꼬리가 길고 덩치는 크다. 사파리 투어도 아닌데 이런 애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애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길 오른편은 까마득히 가파른 깊은 계곡이다.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계곡물줄기, 건너편의 높고 가파른 산들이 신령스럽게 보인다. 푸르고 거대하여 쥐라기 공원의 원시 숲을 보는 듯하다. 사진을 못 찍는 것을 남편은 너무 아쉬워했다.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장관이다.

그런데 갑자기 절벽이 있는 이곳에 숙소(안나푸르나 생추어리 롯지)가 나타났다. 몸도 안 좋고 풍광도 좋으니 이곳에서 잘까 싶어 내부를 살펴봤다. 폐업 상태다. 그동안 남편은 가장 급한 충전 여부를 물었다. 작은 태양광이 있어 가능하단다. 요금은 100이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어딘가에 눕고 싶다. 식당 한 칸에 넓은 나무의자 식으로 침대를 만들어 두 분이 자고 있었다. 반대편에 의자를 일렬로 늘어놓은 곳에 아프다고 양해를 구하고 누웠다. 남편은 점심으로 볶음밥을 시켜 먹고 발을 주무르며 충전되기를 기다렸다. 남편도 많이 피곤했을 텐데 나는 뻘어 자고 자신은 마냥 기다려야 하니 힘들었을 거다. 오늘 계속 등애를 쫓아주고, 거머리를 떼어주고, 가파른 계곡 길에서는 손을 잡아 주고 내려오면서 보살펴주었다. 1시간 정도 잤다. 감기 기운이 남아 있으나 다리도 좀 풀리고 정신도 든다. 계곡 가득 구름이 몰려와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쉽게 그을 것 같지 않다. 고맙게도 이 집 식구들은 2번이나 들어와서

침대에 누을 것을 권했다. 미안해서 그럴 수는 없다. 차를 마신 후 좀 낫다. 2시에 도착하여 3시 40분에 그냥 출발했다. 비가 더 오기 전에 사진을 찍는 것은 포기하고 나가려 하는데 다행히 충전이 끝났다. 다행히 빗발도 가늘어져서 비옷을 입고 나선다.

역시 계곡 아래까지 계속 내리막이다. 소변을 본다고 숲에 앉았다가 나중에 보니 분홍색 비옷 여기저기에 거머리가 8마리 정도 붙었다. 남편과 정신없이 살피고 옷을 확인하며 떼어냈다. 자고 나서 몸이 많이 나아져 잘 걷는다. 계곡의 다리를 건너니 갑자기 소 4마리가 나타나 길을 막는다. 송아지가 둘이라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옆으로 조심스럽게 지난다. 여기 소들은 순하다. 가끔 거머리 붙은 것을 떼어 가며 오르막을 오른다. 기껏 내려왔는데 계속 오른다. 그렇게 조심하는 데도 바지 속 허벅지가 찬 느낌이 들어서 보니 또 거머리다. 정말 지겹고 무섭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머리를 만나고 떼어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시 힘이 난다. 긴장하면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속력 내어 걷게 된다. 떼는 동안 잠시 숨도 고르게 해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드디어 하늘이 보이는 오르막길 끝에 반가운 마을 초입 표지인 오색 천이 펼쳐진다. 우리가 오늘의 목표 지점인 타다파니에 파란만장하게 도착했다. 남편은 등예의 숲, 거머리의 숲, 능선길, 계곡과 폭포의 절벽길 등을 통과할 때마다 게임의 경험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위로했는데 정말 가상현실 같은 길이었다. 남편 덕분에 오게 되어 참 고맙다. 도착 시간 5시이다.

아나키의 고레파니 - 타다파니 등산로 정리

고레파니를 떠나 30분 정도는 계속 산 사면을 오르는 숲길이다. 산등성이에 오르면 아침에 올랐던 푼 힐이 보이고 능선길이 이어진다. 좀 지나면 탁 트인 개활지가 펼쳐진다. 다시 숲길로 접어들어 가다가 계속 내리막 끝나는 곳이 데우랄리. 데우랄리에서 또다시 내리막. 계곡과 만나고 랄리구라스 호텔부터는 폭포 절벽길을 내려간다. 계속 내려가면 반탄티. 랄리구라스 숲을 지나 멋진 절벽길을 따라 또 내리막이 이어진다. 계곡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 듯한 내리막의 끝에 다시 그만 큼 올라가는 오르막. 오르막 끝이 타다파니다.

타다파니에는 몇 개의 숙소가 있다. 수도에서 세수하며 어디서 잘까 살피는데 한 아줌마가 자기 숙소로 오란다. fishtail GH 이다. 한국에 3년 있었다고 우리말을 좀 하신다. 모퉁이 방이 지금까지의 방들 중 가장 넓고 괜찮다. 핫 샤워는 100 이란다. 짐을 놓고 방안 빨랫줄에 젖은 옷들을 낸다. 따뜻한 물에 씻고 저녁을 주문한 후 신다. 남편은 간단하게 오늘 일정을 적고 있고 나는 누워서 오늘 만난 놈이 정말 거머리인지, 그냥 사람 피부가 좋아서 기어오르려는 건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려고 했다. 사진을 못 찍어 아쉽다면서.

그 순간 남편 왼쪽 발등 밴드 속에 거머리가 피를 충분히 빨아 통통해져 거의 몸 전체가 빠져나와 있었다. 정말 놀랐다. 뜨거운 물에 샤워까지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어딘가에 붙어 온 놈들이 있었을까? 샤워도 견딘 걸까? 떼어내어 사진 찍고 옷과 가방 등을 살핀다. 방바닥에 떨어진 놈도 있고 몇 마리 더 찾아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피가 잘 멈추지 않고 많이 났다. 휴지로 오래 지혈하고 밴드를 붙였다. 내일 꼭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몬순 시즌은 거머리의 계절이다.



거머리 요놈. 다 먹고 어딜 또. Anakii

슬쩍 잠이 들었다가 7시 반에 주문한 밥을 먹으라고 깨운다. 달빳과 커리밥의 양이 3인분 분량이다. 맛도 좋았다. 그런데 왜 트레킹 중 식사들은 그렇게 맛이 없다는 글들이 많을까. 나는 절반 정도 먹고 남편이 먹었다. 전기가 들어오니 살만 하다. 이 닦고 화장실 간 후 8시 반에 잔다.

■ 2013.7.30(화) 타다파니(2160m)에서 시누와(2360m) 까지

* 이동 경로 : 타다파니 - 멜란제 - 킴롱강 - 구르중 - 촘롱 - 시누와 (2360m)

* 이동 거리 : 타다파니(2630) - 촘롱(2170) - 시누와(2360) 약 8마일 (13km)

새벽 1시 반에 일어나 못 쓴 일기를 쓴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 콧물을 흘쩍인다. 창도 고정 창이고 침구도 포근해서 잘 잤다. 오늘은 더 안 가고 내려갈 거다. 다시 잔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침대에 누워 머리맡의 창을 보았다. 안나푸르나가 보인다. 남편을 깨워서 밖으로 나가니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가 선명하고 가깝게 보인다. 이런 곳일 줄은 몰랐다. 날씨가 아주 좋다. 남편에게 더 올라가자고 하니 어제와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못 갈 거란다. 선명한 산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가고 싶다. 소원이라고 하니까 가자고 한다. 어제 내 상태 때문에 걱정이 많았단다. 다행히 오늘은 몸이 좋다. 사진 찍고 들어 왔다.



안나푸르나가 뒤에 anakii

내 시트에 빨갭게 핏자국이 있어 뭔가 했더니 엄지발가락 밑에 피가 말라 붙어 있어 닦아 보니 거머리에 물린 자국이다. 어딘가에 있던 놈이 자는 동안 빨았나 보다. 기분 나쁘다. 6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양이 좀 많아서 남겼다. 밖의 햇볕에 젖은 옷과 신을 말린다.

7시 반에 출발하여 촌롱까지 갈 것이다. 날도 환하고 눈앞에 잡힐 듯이 산들이 보이는 풍광이 너무 아름답다. 마을을 지나 길이 질척한 길을 잘 피해 다녀가며 내려간다. 집 몇 채가 있는 곳을 지나 무척 바닥이 미끄러운 계곡을 맨발로 건넜다. 계곡물에도 거머리가 있다. 애들 때문에 어디에서도 쉴 수가 없다. 신발바닥의 골에 숨어 있다가 올라오기도 한다.



왼쪽 산 사면을 따라 등산로가 이어진다. Anakii

내려가다 양방향의 갈림길을 만났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진행방향으로 가기로 한다. 한참 마을을 지나고 돌아서 쾌적하고 작은 길을 걷는다. 농가의 밥 먹는 아가씨에게 촌롱가는 길이 맞냐고 물으니 잘못 왔단다. 되돌아 걷다 우리나라 시골집 같은 전형적인 농가에서 차를 시켜 마신다. 블랙티 밖에 없다. 가는 길의 방향

을 다시 잡았다. 이곳은 멜란제 Melanche 마을이란다. 10시에 다시 출발해 원래의 갈림길을 향해 되돌아 걸었다. 마을은 하이랜드 느낌의 평범하고 소박한 곳이어서 구경할 만 했다. 11시경 추일레 Chuile 마을에서 계속 내려가 킴롱강에 놓인 다리를 건넜다.



킴롱강을 지나는 다리. Anakii

오르막길로 계단이 이어진다. 간간이 마을이 나타나고 주로 집의 마당을 통과하여 길이 이어진다. 대단한 풍광의 가파른 계곡을 통과한다. 폭포와 아스라이 깊은 계곡으로 물이 떨어지며 흐르는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넜다.



구르중 Gurjung 마을의 전망 좋은 집에서 차와 볶음밥을 시켰다. 1시 반이다. 아래로 굽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평화롭고 시원하다. 잘 쉬고 계속 오르는 길을 걷는다. 건너편에 멜란제 마을이 보인다. 꽤 높은 곳에 있다. 꼭대기까지 오르다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들춰보니 거머리가 올라와 피를 조금 빠는 것을 떼었다. 물론 시시때때로 계속 신발을 타고 오른다. 오른쪽 쳐드랑이가 계속 따끔거리려 굽는다. 뭘가에 쓰였나 싶다. 땀이 나서그런가 싶어 목 쪽으로 젖은 수건을 넣어 닦아 봐도 여전히 하다.

힐탑 Hilltop 에 올라 촘룽 방향으로 간다. 큰 중학교를 지나 계속 내려간다. 촘룽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깔끔하고 정갈한 숙소들이 많다. 집에 가는 꼬맹이들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다람쥐처럼 빠르게 슬리퍼를 신고 뛰어 내려간다. 여기서 머물까 고민하다가 시간도 좀 있고 오늘의 코스가 많이 힘들지 않았기에 더 가기로 한다. 가파른 계단을 한없이 내려간다. 4시 반에 아래로 다 내려가 다리를 건넌다. 눈 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햇빛과 열은 갈색이 섞여 팔팔 흐른다. 폭포로 부터 시원한 계곡의 물바람이 분다.

다리를 건너 오르막길. 내일 다시 돌아와야 하는 길이라 고민하다 선택했지만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5시가 지나 비가 퍼붓기 시작한다. 심해서 시누와 아랫마을 가게에서 비를 그으며 차를 마신다.



대단한 폭우다. 발이 묶인 학생들이 쉬어 가기도 하고 닭장수들도 비를 피하다가 닭을 판다. 6시까지 풍광 좋은 경치 속에 비구경하며 기다리다 그냥 비웃 입고 출발한다. 생각했던 것 보다 거리가 멀고 계속되는 오르막이라 힘들다. 조심스레 걸었으나 몸이 다 젖었다.

끝없는 듯한 오르기를 반복하여 힘이 다 소진되었다. 표지판에 이 지역은 육 고기를 금해야 하는 이 사람들의 신성지역이라고 한다. 산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야 하고 메뉴판에도 거의 없었다. 어렵게 윗마을 시누와에 도착했다. 6시 50분이다. 숙소는 단 한곳만 열었는데 방이 작고 별로다. 지금까지 괜찮은 숙소에 있었는데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숙소라니 힘이 빠진다. 전망 좋은 방은 4인실인데 침대 2개만 쓴대도 4개 값을 내란다. 나머지 방들은 침침하다.

결국 3인실을 2인실 값에 들었다. 창고 같다. 남편은 샤워하러 가고 젖은 옷을 벗는데 오른 팔에도 거머리 물린 자국이 있다. 긴 팔을 입어 확인할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다. 게다가 벗은 옷의 겨드랑이 부분이 붉게 되어 있어 오른쪽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거대하게 피를 빨린 자국이 있다. 기가 막히다. 아까 따끔거렸던 것이 다 이것 때문이었다. 또 있는지 여기저기 살폈다. 괜히 촌롱에 있을 것을 무리하게 왔나 후회가 되었다. 마차푸차레 뷰포인트라 고생해서 왔는데... 숙소나 거머리 모두 기분이 별로다. 남편이 와서 샤워 중 통통한 거머리가 비누질에 피를 토하며 바닥에 떨어졌단다. 어디를 물린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조심했건만... 파상적으로 신발을 오르는 거머리 떼를 보면 정말 질린다. 샤워하고 젖은 옷을 다 널었다.

식사하러 가니 이미 두 명의 남녀가 있었다. 달빳과 치즈 볶음면을 주문했다. 치즈 맛은 좋았고 죽순이 나왔다. 8시 40분에 방에 왔다. 숙소의 침구도 별로인데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가급적 가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힘들기 온 가치가 내일 있어야 할 텐데... 내일 3200m 데우랄리까지 7시간 이상 걸려서 가려던 것은 포기한다. ABC, MBC도 추워서 못 올라가는데 그대로 되돌아 내려와야 해서 일정만 길어지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먹고 다시 촌롱 위의 힐탑까지 올라야 하니 서둘러 출발할 거다. 비가 정말 많이 온다. 오늘은 11시간 반을 밖에 있었다. 내일 포카라까지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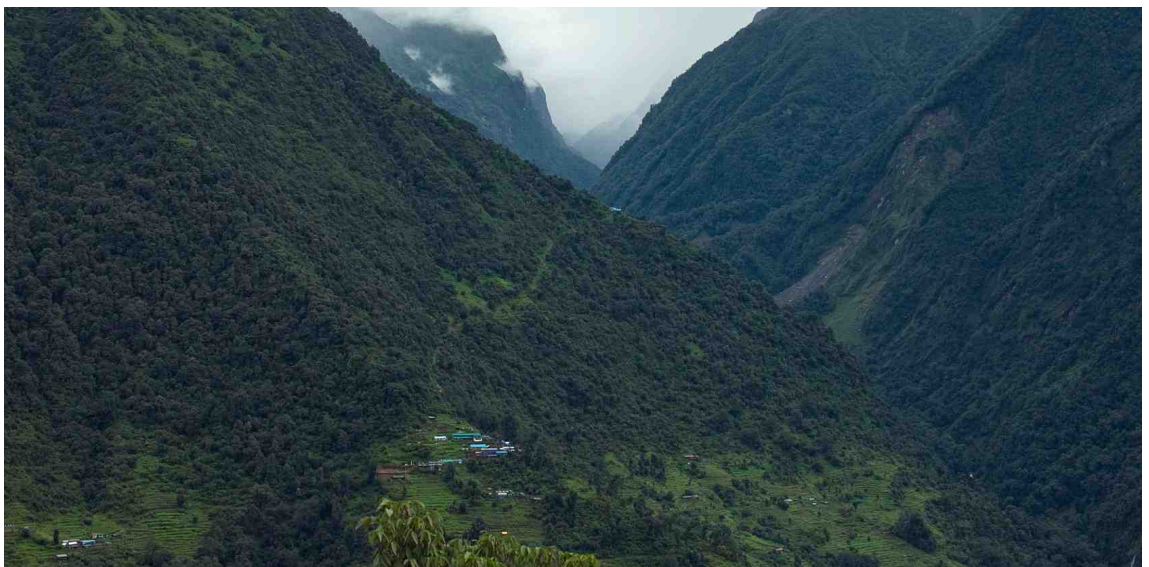
들어갈 수 있을 지...9시 반에 잔다.

아나키의 타다파니 - 시누와 등산로 정리

타다파니에서 급경사로를 한참 내려간다. 정원 넓은 추일레호텔 지나 작은 개울 건너 십터가 나오고 갈림길. 진행방향으로 가면 간드룩으로 가는 길이니 왼쪽으로 가야 한다. 고산 농업을 하는 마을을 지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킴롱강까지 계속 내려간다. 강을 지나 오르막. 구르중 마을까지는 시원한 전망 좋은 산사면길. 여름이라 농작물들이 풍성하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밭벼도 보인다. 길 따라 계속 하이킹하면 세 시간 정도 지나 촘롱 도착.

촘롱은 언덕 꼭대기부터 계곡 아래쪽에 이어지며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전체가 경사로. 촘롱에서 바라보면 시누와가 보인다. 산 사면에 보이는 게 시누와 아랫말, 중턱에 걸친 건물이 시누와 윗말. 아래 사진으로는 시누와 윗말이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에 가려진 오목한 부분이 넓어서 실제 거리는 보이는 것의 두 배 정도다. (촘롱에서 어퍼시누와까지 두 시간 이상 걸린다)

오늘의 등산은 히말라야 고산 농업 마을 탐방. 마을길을 따라 이어지는 푸근한 트레킹.



촘롱에서 본 시누와 anakii

■ 2013.7.31(수) 시누와에서 하산 하는 길

* 이동 경로 : 시누와(2360) - 촌롱(2170) - 지누 - 큐미 - 시위/키토 - 포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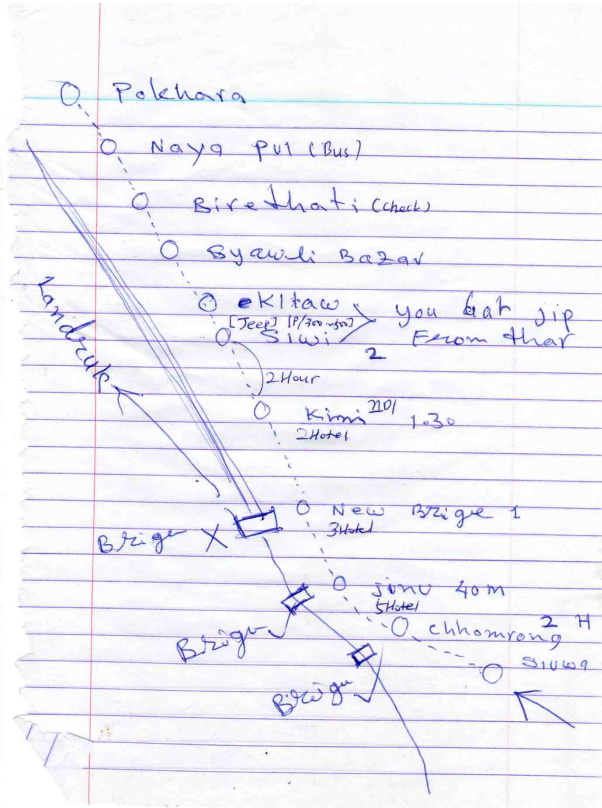
* 이동 거리 : 시누와 - 키토 약 10마일 (16km)

간밤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비가 내렸다. 모든 것이 다 떠내려 나갈 듯 난리가 났었다. 몇 번 목이 말라서 깐 것 말고는 불편한 몸을 뒤척이며 잘 잤다. 남편은 내려갈 걱정이 많이 됐는지 잠을 설쳤단다. 5시에 일어나 서로의 꿈 얘기를 했다. 5시 반이 되어도 구름 가득한 하늘. 마차푸차레의 절경을 보려고 고생해서 왔는데 어쩔 수 없다. 남편이 지도를 보더니 어제 촌롱에서 400m 높이만큼 내려와 다시 다리를 건너 400m 높이를 올라온 거란다.

아침식사를 하러 내려갔더니 주인아저씨가 간밤에 섬세하게 포카라 가는 길을 적은 종이를 주셨다. 어제 남편이 내려가는 길을 물었더니 만들어 놓으신 거다. 상세 지도에는 지름길이 표시되어 있었다. 참 고마운 분이다. 달빳은 반찬의 양이 푸짐했고 맛있었다. 구릉 빵은 얇게 반죽한 판을 튀겨 꿀을 발라먹는데 기막힌 맛이다. 꿀이 많이 달지 않고 걸쭉하다. 짐 챙겨 7시에 출발.



시누와에서. 하산길. Anakii



급히 만들어주신 하산(?)지도.

다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계속 내리막을 내려간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먼 길을 올라왔나 싶다. 다리까지는 한 시간이 걸렸고 촘롱 올라가는 길을 쉬엄쉬엄 오른다. 학교 가는 아이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힘든지 천천히 장난 치며 오른다.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와 아이들 까부는 걸 구경하다 다시 오르려는데 건너편 GH아저씨가 포카라 가냐고 묻는다.

더 오르지 말고 옆길로 가란다. 바로 이 길이 시누와 GH 주인아저씨가 가라 했던 길인데 어디에도 포카라 간다는 표시가 없다. 우연히 이분을 만나 다행이었다.

잠깐 화장실을 들렀다 출창 내리막을 간다. 밝은 곳이라 거머리가 없다. 해가 날 때 이곳을 내려가자면 힘들 거다. 물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다. 중간 중간 어제 산 땅콩쿠키도 먹어 가며 간다.



지누로 가는 길. Anakii

지누Jihnu 에 도착했다. 이곳은 Hot spring 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 가는 방향을 물으니 옆길을 가리킨다. 내가 워낙 가고 싶어 해 남편이 가 준다. 숲길을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 하염없이 간다. 거의 계곡 밑까지 가야할 것 같다. 계다가 거머리가 많아 마구 신발에 오른다.

거의 다 내려가서 남편이 포기하고 오르자고 한다. 온천이 어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거머리가 많은 이곳에서는 온천물 속에도 있을지 모른다. 포기하고 다시 오르는 길도 힘들고 땀이 뻘뻘 났다. 잠시라도 서 있으면 거머리가 마구 기어올라 떼어내며 간다.

식당 아저씨에게 도대체 온천이 어디 있냐고 하니 계곡까지 15분 내려가면 강 옆에 있단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섞여 별로일거라고 한다. 계곡까지 200m높이는 내려가야 하는데 절대 15분 거리는 아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쉬며 세수도 하고 신발을 벗으니 남편 양말 속에 거머리가 들어가 발바닥을 물어 피가 별졌다. 이놈들 참 대단하다. 어떤 놈은 남편 신발 망사부분을 비집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고운 망사도 몸을 가늘게 하여 통과하나 보다. 양말과 망사라니.... 거머리에게 어떻게 사는지 인터뷰라도 해 보고 싶다. 남편이 떼서 도르르 말아 버린다. 질감이 고무 줄같단다.

구름 빵과 꿀, 누들수프와 차를 시켰다. 꿀을 왕창 발라 먹으니 좀 힘이 난다. 누들수프는 야채를 볶아 라면과 함께 끓인 것이었다. 외국인 애가 온천이 어떠냐 물어 서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뉴브리지 마을로 가는 다리에서. Anakii

12시에 지누를 출발하여 내리막 숲길을 걷는다. 다리를 지나니 나무에 작은 원숭이들이 떼 지어 매달려 있다. 포터도 없이 오는 외국인 애들을 만나 이런저런 정보를 나눴다. 또 한명의 리투아니아 애는 완전히 거지 가까운 히피스타일로 슬리퍼를 끌며 무화과를 먹고 오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자기도 얻었다고 먹으란다. 맛은 약간 달다. 짐도 거의 없고 수행자 같은 독특한 아이였는데 히말라야와 잘 어울린다. 민가를 지나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간다. 비가 와서 비옷을 꺼내 입었더니 덥다.

한참 내려와 거의 지쳤을 때 뉴브리지 New bridge 마을에 도착했다. 차와 커피를 시켰다. 비웃을 입으면 더워 어지간하면 아예 비 맞고 걷는 게 시원하다. 아저씨가 시위 Siwi에서 짚을 탈 수 없으니 키토 Kitaw 까지 내려가란다.



세시 반. 트레킹 6시간째. Anakii

큐미 Kyumi마을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걷는데 참 힘들다. 큐미에는 유난히 닭과 염소들이 많다. 아마 이 닭들을 지고 올라가 윗마을에 파나 보다. 너무 힘들어 계단에 앉아 쉬며 염소 우리를 구경했다. 이곳 동물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예쁘게 생긴 염소들이 우리 쪽으로 올라와 뿔 달라는지 귀염을 띤다.

한참 앉아 쉬다가 내려가서 다리를 만났다. 거대한 폭포가 소를 만들고 웅장한 기세로 흐른다. 다리 위는 물바람 때문에 언제나 시원하다. 멋진 풍경이다. 신발 한 짝이 돌돌 맴돌며 내려가지 못한다. 이 오지와 같은 풍광을 지나자 바로 시위마을. 역시 짚은 없다. 이제 산이 끝나고 길이다. 산 한쪽이 무너져 내려 대나무 더미가 거대하게 쏟아져 있기도 하다. 5일 동안의 여행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토사로 끊어진 길 (키토-시위간) Anakii



키토 짚 스테이션 도착. 오후 6시 20분 Anakii

힘들지만 타박거리고 내려 와 키토에 도착했다. 나는 왼쪽 무릎이, 남편은 발바닥이 엄청 아프다. 짚은 많았지만 타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물으니 포카라까지 4000을 내란다. 남편이 2000을 부르자 한분이 2500을 달란다. 나는 그냥 내려가자 한다. 너무 비싸서 힘든데도 차라리 견뎌겠다는 생각이다. 마침 볼일 있는 듯한 아저씨가 2000에 가자고 동의하여 9인승 짚에 우리 둘만 타고 출발한다.

아나키 : 현지인은 1인 300이라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짚은 9인승이지만 더 타려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으므로.

게바라 : 차를 타고 내려오며 깜짝 놀랐다. 길 곳곳이 넘치는 물로 강을 이루고 엄청난 수량의 물을 지나고 죽사발 된 진창길에 빠지기도 하면서 탱크처럼 간다. 타고 있기 미안할 정도의 험한 길을 다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이다. 가면서 온갖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길을 막는 동물들을 쫓아내며 내려간다.

비레탄티 Birethanti 의 퍼밋 사무소에서 국립공원 나가는 것을 확인받고 TIMS 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았다. 아저씨가 나야풀 Nayapur 동네에 잠깐 들러 배달할 물

건을 실었다. 여기까지 한 시간이나 걸렸는데 만약 이 차를 못 탔더라면 어딘가에서 자야 했을 거다. 포카라까지 안전하게 운전해 가며 숙소앞까지 데려다주었다. 8시에 도착했다.

고요한 산과 달리 포카라는 정신이 없다. 속세에 왔구나 싶다. 이래서 절은 산에 있나봐.

다리는 무척 아프지만 정신은 선명하고 맑다. 남편도 전혀 졸립지 않다고 한다. 우리를 태워 주어 정말 고맙다. 이분들은 오는 도중에 걷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타란 말을 안 한다. 오히려 내가 더 태우라고 했을 정도로 흥정에 깔끔한 모습이다. 고맙단 인사를 하고 돈을 드린 뒤 산촌다람쥐에 갔다.

산촌다람쥐 아저씨 덕분에 얼마나 즐거웠던지... 조언해 주신 모든 말들이 딱 맞고 적절했다. 맡긴 짐을 찾고 소개받은 세레니티 호텔에 500을 주고 묵었다. 제대로 된 호텔이어서 시설이 아주 좋다. 방의 두 면이 넓은 창이다. 샤워 하고 시장에 가서 망고만 샀다. 소비따네서 찡, 닭도리탕, 김치 볶음밥을 시켰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 기분 좋게 얼음이 동동 뜬 창과 김치를 먹으며 무사히 산행을 마친 것을 축하한다. 행복하다. 닭도리탕은 맵고 맛있었다.

비가 좀 그어 숙소에 와서 이도 안 닦고 그냥 누워 잤다.

3. 포카라 Pokhara

■ 2013.8.1(목) 포카라

아침 5시에 일어나 옥상에 가 보았다. 구름이 가득해 산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마차푸차레 보기는 힘들겠다. 우리 방에서는 뒤편 호텔의 정원이 보여서 전망이 좋다. 오히려 산 전망 쪽에는 건물들이 마구 지어지고 있어 보기 흉하다. 그냥 이 방에 있어야겠다. 산은 아침에 옥상에 가서 보면 된다.

남편을 깨워 어제 산 망고를 2kg 정도 까먹었다. 천상의 맛이다. 이번엔 시장 아줌마네 망고가 크고 좋다.

일기를 쓰고 빨랫감과 신발 세탁을 맡기고 오늘은 푹 쉬기로 한다.

아홉시에 소비따네 가서 김치수제비, 계란말이, 돼지김치찌개를 시켜 다 먹었다. 길거리에서 싱싱한 망고 2kg을 더 사고 독일 빵집에서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샀다. 슈퍼에서 네팔산 민스크보드카 한 병도 샀다.

숙소에 와 자다가 일어나 산중일기도 치고 망고도 먹는다.

두시 반에 나가 산촌다람쥐에서 치트완 예약에 대해 물어보았다. 2박3일에 1인당 100달러다.

포카라 레이크사이드 북쪽방향으로 약간 걸어본다. 플래스터도 사고 가게 구경도 하는데 취급 품목이 거의 비슷하다. 연두색 네팔전통바지를 흥정해 650에 사고 내려 오다 Bistro Caroline 에 갔다. 책에 소개된 곳이다. 손님은 아직 없었지만 호수를 보고 앉아서 말레이 음식인 궁보치킨 Kungbo Chicken 과 Springroll을 시켰다. 남편은 궁보치킨의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좋단다. Springroll은 땅콩을 다져 넣어 담백하고 고소했다. 이 집의 주인이 말레이시아 사람이라고 한다.



비스트로 캐롤린 anakii

보트를 타러 가다 소나기가 쏟아졌다. 해 볼 수 있는 게 없어 숙소에 와서 일기를 썼다.

잠 자다 6시반 소비따네에 갔다. 일본식 닭튀김과 콩치김치찌개, 창을 시켰다. 비레판띠의 퍼밋사무실에서 만난 한국아가씨가 왔다. 네팔 여행한 이야기와 트레킹한 것을 화제 삼아 음식을 먹었다.

아랫마을을 산책하다 숙소에는 9시 반이 넘어 들어왔다. 치트완은 내일모레 투어리스트버스를 타고 가 볼 거다. 버스비는 500이다. 랑탕 트레킹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 2013.8.2(금) 포카라

아침5시에 일어나 론리를 자세히 읽는다. 오늘 갈 포카라 맛집들과 앞으로의 여행 동선을 확인했다. 그런데 치트완에서 2박3일 동안 국립공원 내에 묵으며 사파리 투어 하는 것이 230달러란다. 세상에... 생각 외로 비싸다. 비수기엔 할인해 준다지만 그래도 상상 외다. 산촌다람쥐에서는 치트완 버스포함 2박3일에 룸비나나 카트만 두 가는 차편 제공까지 포함하여 100달러라니까 싼 거다. 우리가 직접 치트완 외곽의 소라하Sauraha 에서 찾아보려 했는데 편하게 가야겠다 싶다. 남편을 깨워 의논하

고 아침으로 망고를 먹었다. 하루 사이에 많이 익어 맛있다. 어제는 덜 익은 애 하나가 녹말 맛이 많이 났었다. 배블리 3개씩 먹고 산중일기를 친다.

내가 수첩에 쓴 내용을 읽어 주면 남편이 치고, 치다 지치면 다시 내가 친다. 참 길다. 책을 읽거나 쉬다가 9시 반에 산촌다람쥐에 가서 치트완 여행을 예약했다.

고맙단 인사를 하고 나와 Moondance 레스토랑에 갔다. 태국 그린커리와 Healthy Food 를 시켰다. 태국의 알싸한 커리맛이 아니라 크림소스와 비슷하다. Healthy Food는 시금치, 두부, 버섯볶음과 현미밥이다. 우리 식의 음식이지만 짙은 인디카 현미다. 커리는 그런 대로 맛있었다. 론리 추천 레몬 머랭 파이는 꽤 최고 수준이었다.



문댄스 레스토랑 anakii



페와호수 anakii

페와호수에 가서 사공과 함께 하는 한 시간 보트권을 끊었다. 약간 구름이 있고 바람이 살살 분다. 페와보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 협동조합의 느낌이다. 호객 없이 표를 끊으면 사공을 순번대로 배정한다. 보트만 빌리면 350, 사공 포함은 400에 구멍조끼는 10씩이다. 노를 저어 주니 편하게 풍경을 감상하며 구경하면 된다. 초록 빛 물에는 부레옥잠과 물배추가 떠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닌다. 호수 건너편 가장자리는 호젓하고 숲이 깊다. 조용하여 평화로웠다. 멀리 사랑곶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내려온다.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Pewa Taal, anakii

호수 주변을 좀 걷다 너무 더워 12시에 숙소에 온다. 씻고 교대로 일기를 치다가 자거나 책을 읽는다. 낮잠을 한 시간 이상씩 자고 있다.

네 시에 나가니 햇볕이 너무나 따갑다. 우산 겸용 양산을 펴들고 레몬트리에 갔다.

생선요리와 스테이크를 시켰다. 오! 인터넷의 평대로 만족스러운 양의 음식이 나온다. 갖은 야채를 곁들여 푸짐하다. 누군가 '레몬트리에 오지 않으면 유죄' 라더니 과연 그럴 만하다. 페와호수의 생선은 송어 비슷한 질감과 색이며 고소하다. 스테이

크는 어제 만난 수정씨 말대로 부드러웠다. 정말 우리나라 몇 만 원 대 스테이크 수준으로 가격 대비 최고다. 맛나게 먹고 나와 보니 약간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 걸을 만 했다.



Lemon Tree, anakii

레이크사이드 남쪽으로 내려가 본다. 훨씬 거리가 한산하고 고급스런 숙소들이 있다. 길에서 왕망고를 파는 아주머니께 킬로당 120짜리를 세 개 샀다.

am/pm 오가닉 카페에 갔다. 전기가 나가서 카푸치노등이 안 된단다. 드립커피와 카페오레를 주문했다. 서비스로 다르질링 차 두 잔을 준다. 공사하고 오늘 신장개업이라 차가 서비스란다. 더운데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만 향과 맛이 뛰어나다. 와인 병을 잘라 만든 등갓이 특이하여 남편이 사진을 찍어두며 주인에게 물으니 친구가 잘라주었다 한다.



am/pm, anakii

나와서 티벳음식점의 뜨거운 맥주인 '똥바'를 맛보려고 식당을 찾았으나 사라졌다. 우리가 비옷을 샀던 가게에서 2600부르는 작은 배낭을 1800에 샀다. 중국산 브랜드 'Senterlan'인데 질이 좋다.

소비파네에서 창과 렉시를 사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이 집이 있어서 행복했다. 숙소에 와서 씻고 일기를 쓴다. 왕망고 하나를 샀는데 지나치게 싱싱하다. 두개는 익으면 먹어야겠다. 옥상에 올라가 선선한 바람을 맞다가 내려 왔다. 오늘은 비가 안와 후덥지근하다. 짐 챙겨 놓고 어서 자야겠다.

4. 치트완 국립공원 Chitwan

■ 2013.8.3(토) 포카라-치트완

계바라 : 아침 5시에 일어나 짐을 마저 챙기고 6시40분 출발. 숙비 계산하고 택시를 탔다. 투어리스트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알아서 접근하여 영수증 보자하고 체크한다. 진한 찌아와 달걀을 먹고 버스를 탄다.

25인승의 미니버스 위에 배낭을 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포카라에서 치트완에 간다. 거기 내리면 또 사람이 나온단다. 적당히 비가 와서 시원하다. 7시30분 포카라를 출발하여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다. 빈자리에 적당히 사람을 태워가며 간다. 이 나라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가을처럼 선선하다. 10시30분에 휴게소. 치토스와 봉지땅콩을 사니 250이나 받는다. 맛은 짜다. 그래도 치킨 모모는 기름이 좀 있지만 맛있다.

산길을 오르기도 하지만 서서히 고도가 낮아져 덥다. 계속 줄다가 바랏푸르를 지나 시골길로 접어들어 버스정류장에 12시30분 도착. 각 숙소의 직원들이 나와 있다. 우리 둘을 픽업하여 간다. 작은 소라하 마을을 지나 강가 숙소(정글 선셋 캠프)에 도착한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 일정을 듣고 3층 방을 주어 올라와 씻는다. 누들스프와 스파게티 점심을 준다. 마늘만 넣어 볶아 먹기 힘들다.

강가 있던 사람들 함께 19명이 차로 국립공원에 들어간다. 나무로 만든 카누2대에 나눠 타고 강(Rapti river)을 내려간다. 물속에서 눈만 내놓은 악어 4마리, 킹피셔라는 푸른빛의 새, 작은 원숭이를 보았다. 30분 정도 타고 내려 강가부터 걷는다. 주의 사항은 위험한 동물 대처법에 대한 것, 뭉쳐 다녀야 한단다.



소라하 투어리스트 버스파크, anakii



눈만 빼꼼이 내 놓고 있는 가리알 악어, anakii

습지를 지나며 모두 신발을 망쳐서 아예 맨발로 걷는 애들이 있다. 스치면서 풀씨가 바지에 촘촘히 붙어서 가시 바지가 된다. 얼굴이 별장게 되고 걷기에 너무 힘든 날씨다. 땀이 줄줄 흐른다. 한참 걸어 풀숲에 숨어 있는 코뿔소 1마리 발견. 어린 수컷은 천천히 움직여 풀을 뜯어 먹다 물가로 와서 물을 먹는다. 천천히 코뿔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걸으며 관찰한다. 부레옥잠이 가득찬 못에 들어가 완전히 몸을 잠기게 하여 목욕을 한다. 사람이 보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뺨히 쳐다보기도 한다. 늘 혼자 다닌단다. 갑옷을 입은 듯한 몸, 유니콘 같은 짧은 뿔, 돼지 모습 같기도

한데 씩씩하게 보인다.



치트완 국립공원, anakii

가이드에게 호랑이를 봤냐고 물으니 2개월 전에 봤단다. 사슴, 원숭이, 개, 심지어 사람을 먹는다고. 야행성이나 배고프면 낮에 나오기도 한단다. 네팔 전역에 195 마리가 있고 치트완에 120 마리가 있단다.

돌아오며 소나기가 내려 카메라와 전대만 비닐에 잘 넣고 비를 맞는다. 더운 몸을 식혀주어 오히려 시원하다. 코끼리 돌보는 곳에서 귀여운 아기코끼리를 구경한다. 엄청 작아서 너무 귀엽다. 코가 작아 움직임이 꼭 거머리 같다. 엄마 다리에 꼭 붙어 있다. 소나기가 세져서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간다. 얼마나 달귀졌는지 옥상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뜨겁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자주색이다. 다시 걸어서 배 타고 강을 건너 차로 숙소에 온 시간이 6시 20분. 샤워해도 시원하지 않고 방은 잔뜩 달귀져 찜통이다. 밖도 여전히 덥다.

가게에 가서 망고 2kg 사오고 7시에 저녁 식사. 기대했던 부페는 아니고 그냥 달빳. 그래도 콩깍지 조림과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반찬 맛이라 맛이 있다. 오늘은 목에 담이 들어 고개를 돌리기 힘들다. 저녁을 먹으며 우연히 남편이 우리 방 번호가 쓰인

종이에 물병 가져간 것 3개를 체크한 걸 보았다. 한 병에 40씩이란다. 공짜줄 알았는데 넘 비싸다. (하지만 체크아웃할 때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여행 에이전트에게 청구하는 것일까?)

8시에 소라하의 따롱족 민속공연장에 걸어간다. 넓은 극장에는 사람이 이미 꽉 찼고 계속 들어온다. 이 더운 계절에 웬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지. 거의 중국인이다.

춤 형태의 무술, 축제 춤 등을 보다 더워서 나왔다. 물과 맥주를 사서 숙소에 와 또 샤워를 한다. 씻어도 소용없다. 그냥 자려다 테라스에 앉아 망고를 까먹는데 정신이 혼미하다. 피곤해 그냥 잔다.

■ 2013.8.4(일) 치트완

밤 새 뒤척이며 잤다. 5시 반에 일어나 테라스에 나와 일기를 쓴다. 습해서 널어놓은 옷도 마르지 않고 심지어 어제 감은 머리도 안 마른다. 아침에도 시원하지 않고 바람이 아예 없다. 더워서 천천히 입력해도 일기에 오타가 많다. 아침부터 이러니 얼마나 더울까. 어젯밤은 너무 더워서 남편은 신혼 초 4층 찜통 빌라가 생각난단다. 여기도 위는 옥상이다. 그나마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할까? 선풍기가 꺼진다면 지옥일거다. 에어컨은 장식용이고 작동이 안된다.

7시15분에 아침을 먹으라고 부른다. 강가를 바라보며 서양식 아침을 먹었다. 이른 아침부터 카누타고 내려가느라 바쁘다. 8시가 되니 가이드가 코끼리 타러 가잔다. 8시 반에 코끼리에 오른다. 이곳 코끼리들은 잘 먹이고 대우가 좋다고 책에서 읽었다. 보통 4명이 타는데 우리는 둘이 탔다. 아침 숲은 조용하고 습지가 많다. 꽃사슴들이 숲 사이에 숨어 있고 어미와 아기 코뿔소들이 진흙 목욕하며 쉬고 있다. 코끼리부대가 에워싸니 아기는 엄마 엉덩이 근처에 가만히 숨어 있다. 코끼리들은 죽처럼 진 땅을 걸을 때 조심스레 천천히 디디며 순하게 움직였다. 몸에 무늬가 없는 사슴도 보았다.



엄마와 아기 코뿔소, anakii

우리가 탔던 코끼리, anakii



코끼리 샤워장, anakii

한 시간 반을 타고 나서 팁을 드렸다. 차타고 숙소 가는 길, 우리가 탔던 코끼리가 퇴근하는 것을 봤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출근하겠지. 코끼리조합에서 운영하며 순서대로 태우고 각자 주인집에서 먹이고 돌보는 듯하다. 숙로에 와서 강을 내려다보니 코끼리에게 목욕당하는 이들이 보인다. 코끼리 목욕하기는 씻겨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등에 올라타면 코끼리가 코로 물을 머금었다 뿌려주는 거다. 코끼리 똥도 있는 물인데……. 사진만 찍고 와서 숙소에서 쉰다.

일기 쓰고 자다가 12시에 내려가 점심. 많은 양의 돼지고기 볶음면과 콩깍지 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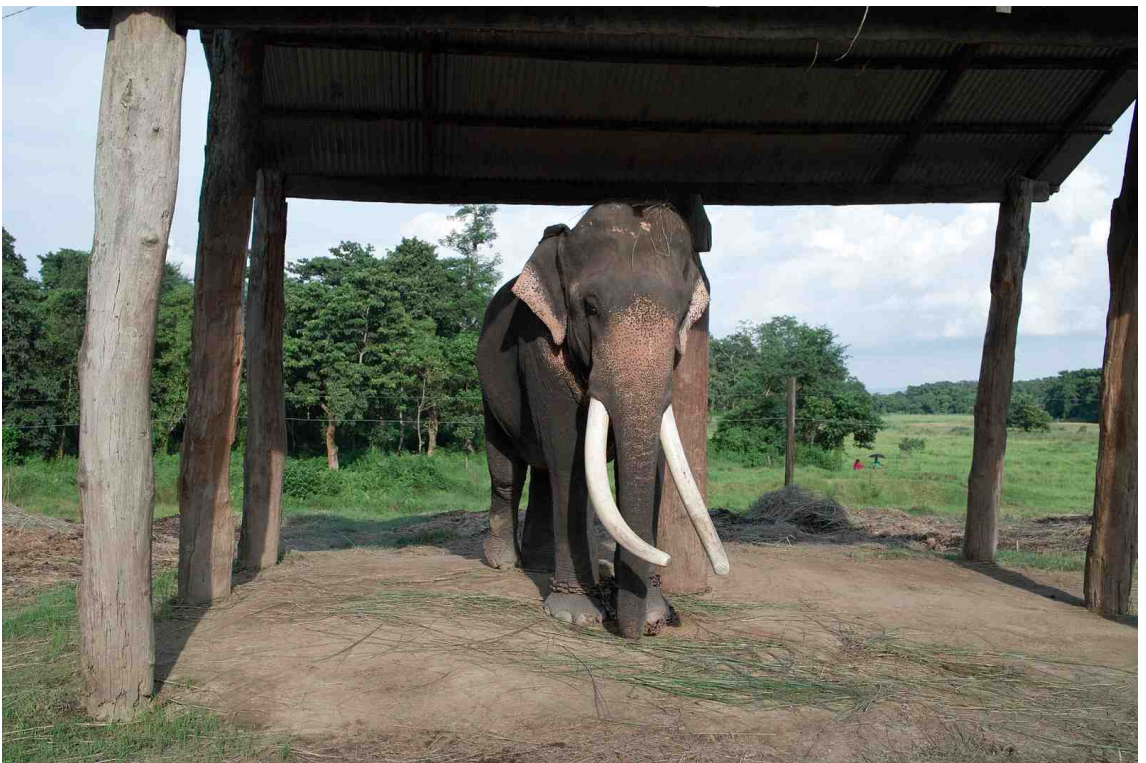
이다. 아침에 서양 애들이 다 가서 조용하다. 우리뿐이다. 숙소에서 자다가 일어나니 남편이 바지에 박힌 풀씨들을 일일이 뽑고 있다. 같이 뽑는다. '옴마니밧메흠', '부담 샤라남가차미'가 나올 정도로 수행같은 작업인데 성취감이 있다. 거머리 같은 지독한 풀씨들이다. 촘촘히 박혀서 하나씩 섬세하게 뽑아야 한다.



촘촘히 박힌 풀씨들, anakii

태양이 작열하니 샤워와 선풍기가 아니면 견딜 수 없다. 4시 15분에 가이드와 함께 주변을 돌아보는 마지막 트레킹을 간다. 강변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며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800여 마리의 코뿔소, 2종류의 악어, 4종류의 사슴, 120마리의 호랑이와 느림보 곰, 파충류들과 파이돈까지 있다. 가끔 숙소 앞강에도 사슴이 올 때가 있단다. 숲길을 걸어가는데 바닥에 떨어진 동그란 탁구공 같은 열매가 코뿔소가 좋아하는 거란다. 맛은 약간 시고 떨어름하다. 정부가 키우는 관영 코끼리 막사를 지난다. 정글 조사나 관리, 순찰에 쓰인단다. 어제 본 코끼리 돌봄 센터의 애들이 모두 관영이고 아기 때부터 키운다. 코끼리의 수명은 인간처럼 80년에서 길게는 100년이고 죽을 때는 지정된 죽음의 장소로 떠난다. 국립공원에 대해 설명해 놓은

전시관에 갔다. 이곳 공원 내 동물을 확인한다. 입이 길고 작은 가리알악어는 희귀종이다. 걸어서 초지를 가다가 숲 쪽에 있는 사슴을 봤다. 덩치가 약간 큰데 혼자 다니는 종류란다. 어제 본 꽃사슴은 무리지어 다니고 코끼리 타고 본 썸머 디어 deer 는 짝끼리 다닌단다. 민영으로 코끼리 키우는 곳에 간다. 1개월 된 아기가 엄마 다리에만 붙어 있다. 마침 풀 덩어리 안에 당밀을 감싸 넣은 간식을 주러 사육사가 왔다. 그제야 엄마에게서 떨어져 사육사를 대나무 펜스에 밀어서 누르고 올라가서 발을 걸치고 먹지도 못하는 간식을 건드려 본다. 뒷다리가 유치원생 아이의 통통한 다리 같다.



코끼리농장, anakii

걸어서 소라하 마을로 나와 우리가 숙소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고 가이드를 먼저 보냈다. 어제 공연장을 찾아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 모기기피제 찾기는 포기하고 퇴근하는 민영코끼리들의 사진을 찍는다. 볼 만하고 독특한 이곳만의 광경이다. 태국 처럼 코끼리 서커스 같은 것들이 없어 다행이다. 코끼리는 영물이고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한다. 이곳 아이들은 상태가 좋아 보였다.



엄마와 아기코끼리, anakii



Baby Elephant, anakii



민영 코끼리 퇴근 anakii

숙소앞 가게에 망고가 떨어져서 다시 소라하에 나가서 사고 아주 시원한 물 2개를 샀다. 강변 가로 통하는 연결된 길을 지나니 신기하게 바로 숙소다. 마을을 돌고 나니 위치 파악이 확실히 되고 우리 숙소만큼 입지가 좋은 곳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변을 바로 보는 곳은 없고 시설 면도 거의 최상이다. 씻고 빨래 후 일기. 7시에 저녁 먹으러 간다. 우리뿐이라 돼지고기 볶음밥을 주는데 거대한 하트 모양으로 꼭꼭 눌러 큰 접시에 한 가득이다. 역시 콩깍지 볶음과 토마토 샐러드도 많다. 천천히 겨

우 다 먹고 하늘이 번쩍거리기에 옥상의 빨래를 걷어 놓으려고 올라갔다. 하늘의 번개가 거의 레이저쇼 수준이다. 넓은 평원이라서 나중에는 6군데에서 서라운드로 번쩍이는데도 한 권에서는 금성이 빛난다. 멧진 곳은 인도 쪽인 듯. 멀어서 소리가 안난다. 반딧불이도 반짝이며 온다. 방안은 짐통이다. 샤워도 소용이 없다.



석양, anakii



석양 2, anakii



Lightening, anakii

5. 룸비니와 빨빠 Rumpini & Palpa

■ 2013.8.5(월) 치트완 - 룸비니

게바라 : 간밤에는 더워서 자다가 샤워를 하고 누워도 더웠다. 새벽에야 처음으로 이불을 덮어 보았다. 5시 20분에 밖에 나오니 어제보다 시원하다. 밤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도 안 닦고 잔다. 모든 것을 좌절시키는 더위다.

아침밥은 짜파티와 달걀, 감자 등이 나왔다. 이미 망고를 잔뜩 먹어서 짜파티는 짬과 마가린을 발라서 따로 싣는다.

숙소 매니저 아저씨가 아침부터 뭔가를 계속 찍는다. 인도의 요기처럼 생기셨는데 날마다의 변화, 작은 새들의 움직임, 매일 매일의 해님이 등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찍고 있다. 라즈니쉬 추종자인가본데, 멋진 분이다. 방명록에 소감을 남기고 9시에 버스정류소에 왔다. 코끼리 퐁 종이로 만든 액자 두개를 500에 샀다.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더니 9시 반엔 거의 차서 떠난다.

테라이지역은 꽤 덥다. 버스에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타서 딱딱 찬다. 더워서 좀 더 간다. 중간 휴게소에서는 아침에 준비한 빵을 먹었다.



룸비니 쪽으로 가는 버스, anakii

아나키 : 치트완~룸비니길은 깔끔하게 아스팔트 2차선로다. 차선 너비가 충분히 넓고 오가는 차는 비교적 적다. 논농사 풍경이 익숙하다. 우기지만 습하지 않고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정도고 길은 전혀 질척하지 않다. 온도는 30도전후. 차창으로 부는 바람이 시원하다.

남부지방 사람들은 확실히 인도풍이다. 가는 차 내내 인도의 흥겨운 음악이 차를 가득 채운다.

게바라 : 부뜨왈을 경유하지 않고 남쪽 길로 바로 접어들어 2시 반경 바이라와 도착. 50에 흥정하여 릭샤를 타고 룸비니가는 버스파크에 갔다. 돈이 1000짜리 밖에 없어 망고를 사려고 하는데 룸비니가는 로컬버스차장이 센스 있게 릭샤알라에게 돈을 대신 내 주며 배낭을 신는다. 덕분에 빨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곧 사람이 미어터진다. 나중에 차비 130과 함께 릭샤비를 합해 드렸다.

중간 중간 설 때마다 사람이 많이 타고 행사장인 듯한 지역을 지날 때는 더 이상 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게 로컬버스구나. 사람들 생김새가 이제 인도와 가깝다. 티벳계열은 거의 없다.

룸비니에 내려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과자를 샀다. 망고 2킬로를 140에 샀는데 산지라고 결코 싸지 않다.

릭샤를 흥정해 타려 했지만 400을 불렀다가 200까지 내려가고 남편이 50을 부르니 전혀 안간댄다. 그냥 우산 쓰고 걸었다. 1.5km정도 걸어서 4시20분경 대성석가사 도착.

너른 공원에 띄엄띄엄 각 나라의 절들이 있다. 숙소는 원래 남녀 방이 각각이나 부부라 하니 가족실을 주었다. 나무 침상에 넓은 화장실 겸 욕실.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해 널었다.



석가사의 가족실, anakii



바이라와-룸비니, anakii

밖으로 나가 중국절, 네팔 절을 둘러보고 호주 절은 문을 닫아서 못 봤다. 네팔 절은 티벳절 비슷하다. 달라이라마 사진도 있다. 5시 반에 우리나라 절을 구경한다. 본존불이 아주작고 소박하며 전면에 탱화 3장이 걸렸다. 이슬람사원처럼 정갈하다. 아직은 어두운 시멘트색이 전부인 절이지만 쉬기에 참 좋다. 이런 절을 18년째 만들고 계신 범신스님은 대단하시다.



중국절, 사천왕상, anakii



네팔 절, anakii

6시에 저녁 식사. 양배추와 오이절임, 콩고기커리 등의 부페식 식사다. 맛나게 먹고 뜨거운 보리차에 보리미숫가루를 타 먹었다. 커피처럼 짹짹하고 진한 것이 맛있다.

샤워 후 예불에 참석했다. 의식을 따라 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지만 경건한 분위기가 좋았다. 예불 후 잠시 앉아 있다가 숙소에 와서 샤워했다. 다행히도 선풍기가 잘 돌아간다. 1층에는 스리랑카 단체 순례객인 노인들이 요리재료와 요리사까지 동원하여 대형버스 세 대로 와서 묵고 있다. 룸비니 성지에 오려고 스리랑카 스님들과 함께

바라나시에서 대절 버스를 타고 왔다.

석가사는 여러모로 감동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는 절이다. 대중을 맞이하는 요사채를 먼저 지은 것 하며 거대한 법당에 조그만 부처님도 참으로 인상적이다. 펌프물을 누구나 맘대로 길어 먹을 수도 있다. 다른 절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만 북적인다.



대성석가사 본당, anakii

■ 2013.8.6(화) 룸비니

계바라 :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났다. 밤에 가끔 선풍기가 멈췄지만 다시 금방 돌아가서 잘 잤다. 치트완보다 잘 만하다. 바닥이 평상 형태의 침대인 나무여서 덥지 않다. 6시 아침 식사 후 데비사원을 향해 걸다가 더워서 나중에 자전거로 가자고 하고 돌아온다. 스리랑카 노인들은 물론 걸어서 가신다. 7시 50분에 자전거를 빌려 마야 데비 사원. 입장료가 많이 올라 200 썩이다. 신을 벗고 들어가 사원 안에 있는 부처님이 탄생한 장소를 표시해 놓은 돌을 보는 거다. 사원 뒤에는 목욕 장소를 상징하는 연못과 보리수나무가 있다. 나무 아래에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



MahaDevi Temple, anakii



Sacred pond, anakii

한 네팔 스님이 오셔서 부처님이 탄생했던 순간을 이야기 해주셨다. 마야부인이 가비라 성을 떠나 친정 방향인 부뜨왈 쪽으로 가다가 더워서 연못에서 목욕을 한 후 살 가지를 잡고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는데 발자국 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양 옆으로 찬물과 더운 물이 솟아났다.

이 스님은 5대 째 이 사원에서 수행하는 집안이란다. 론리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 자기 사진이 있다면서 펼쳐 보여 준다. 보리수나무 아래 두 명의 동자승과 찍은 것인데 17년 전 것이어서 꼬마들이 어른이 됐단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기념으로 보리수 나뭇잎을 몇 장 줍고 나와서 자전거를 탄다. 운하를 타고 올라가 우리나라 절에서 만든 기념탑과 룸비니 박물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왼쪽 길로 접어들어 다른 나라가 만든 사원으로 간다.

길에는 습지에서 물이 넘쳐 골뱅이들이 나와 있다. 절들은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 절이 아니면 이곳은 죽은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 절은 건축 중이고 문을 연 절은 거의 없다. 우리 절에만 사람이 드나들고 잡상인이며 리샤꾼들이 몰려 있다.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니 상인들에게는 좋을 거다. 10시 반에 숙소에 와서 씻고 쉬다가 11시 반 점심. 스리랑카에서 온 성지순례단도 떠나고 한적한 절에 먹는 사람이 적다. 반찬 종류도 많고 국수에 잭 후르츠까지 다양하다. 밥 먹고 나서는 늘 보리 미숫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 먹는다. 짹소름하고 구수해서 속이 편안하다.



조계종에서 만든 탑, anakii

쉬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우리나라가 만든 탑을 지나 바깥 길로 나가 룸비니 마을에 간다. 햇볕이 무지 따갑고 차들이 빵빵거려 정신이 없다. 시장에서 망고를 사고 룸비니 바자. 가게에서 맥주 를 먹고 동네를 둘러보았으나 작고 볼 것이 없다. 노점에서 남편이 초우멘과 모모를 사 먹는다. 주변이 지저분하고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 찝찝하다. 맛은 괜찮다.



룸비니 바자의 노점, anakii

3시 반에 숙소에 와 씻고 빨래. 사온 망고는 씨 부분이 너무 크고 약간 시며 먹을 것이 거의 없다. 시골 망고라 토종이 이런 건지 맛이 별로다. 식당에서 가져 온 '인간 붓다' 책도 읽고 잔다. 빗소리에 밖에 나가니 아주 시원하다. 심하게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사원 마당이 수로가 되었다. 절 주변도 거의 습지다. 대단한 폭우였다. 한참 구경하고 쉬다 6시 저녁식사. 양배추와 오이를 백김치처럼 내는데 이것이 깔끔하다. 6시 반에 예불에 참석했다. 따라하는 수준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용은 전혀 모르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흥내 내며 따라하던 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절에서 행하는 의식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 어쩔거나... 끝나고 더워서 더 있지 않고 숙소에 와서 씻고 쉰다. 선풍기가 없다면 견디기 쉽지 않을 날씨가.

■ 2013.8.7(수) 룸비니-(바이라와-부뜨알)-팔파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니 비가 많이 온다. 6시에 마지막 아침밥을 챙겨먹고 7시20분 출발했다.



비오는 석가사, anakii

옷이 잘 마르지 않아 덜 마른 옷을 입고 간다. 우산을 쓰고 30분을 걸어 롬비니바 자르. 8시에 로컬버스가 출발하여 시원하게 달린다. 사람도 적고 쾌적하다. 차장이 아주 잘 생겼다. 부처에 관한 영화를 찍는다면 주인공을 시켜도 될 정도다.

8시 50분 바이라와 도착. 같이 탔던 버스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부뜨왈에 간다고 릭샤왈라들에게 알려 준다. 다른 정류장에 타는 곳이 있다고 하여 50에 흥정하고 처음 치트완에서 올 때 내렸던 그곳을 향해 간다. 길이 질척해 고생스러워 보이기에 70을 주었다. 부뜨왈 가는 로컬버스를 타라고 바로 내려 줘서 타고 보니 우리가 버스 내렸던 그 길 옆 쪽에 내려 정차하는 거다. 릭샤꾼들에게 속아 괜히 왔다 갔다 했다.

이 차장도 역시 이탈리아인처럼 잘 생겼다 중간에 탄 언니가 작은 누나를 닮아서 우리는 붓다 영화를 찍는다면 이 두 사람이 부모 역할을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몽골 분 인도풍 유럽풍 등등 정말 다양한 얼굴이 섞여있다. 신기하다.



Butwal Buspark, anakii



가우리 상카 GH, anakii

기사 아저씨와 차장은 우리를 빨빠 가는 곳까지 안내 해 주었다. 부뜨왈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다. 빨빠 가는 차의 표를 끊고 기다려서 열 시 십 분에 출발 했다. 차는 하염없이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빨빠 갈 사람들을 끊임없이 태운다. 티벳 얼굴들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 가전제품을 사 가는 사람부터 염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산지가 시작되는 길부터 빨빠 주가 시작된다. 이 길이 구비구비 구절양장 같은 싯다르타 하이웨이이다. 황색 흙탕물이 무섭게 흘러내려오는 계곡을 지척으로 굽어보며 달린다. 길이 좀 유실된 곳은 떨어질까 무섭다. 산지는 시원하고 공기도 때라이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을 내리고 태우기를 반복하며 계속 올라간다. 이제는 선선해져서 춥기까지 하다. 졸며 가다가 산지마을에 잠시 멈췄을 때 남편이 파인애플을 사먹었다. 두 시간 남짓 알려 열두시반에 빨빠에 도착했다. 가파른 길을 올라 화이트 레이크 호텔에 갔다. 화장실이 없는 조그만 방이 600이다. 길을 내려와 Gaudi Shanka 게스트하우스.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화장실 포함하여 700 부르는걸 깎아서 600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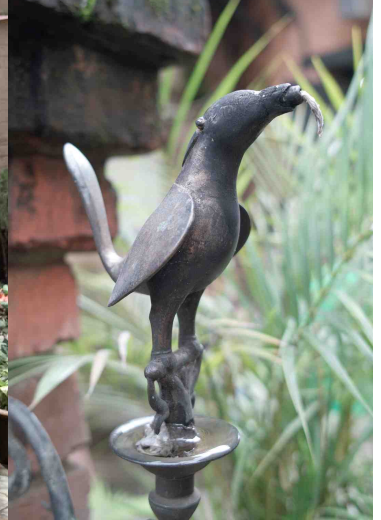
점심 먹으러 론리에 나온 Nanglo west에 갔다. 이 지역에서 제일 근사한 식당이다. 치킨모모, 양고기 달빳, 버팔로고기를 곁들인 네와르 전통스낵을 시켰다. 달빳은 지금까지 먹은 것 중 가장 고급스럽다. 스낵은 쌀 찢 것을 누른 딱딱한 곡물에 겨자와 요구르트 맛이 나는 소스와 커리 소스 두 가지를 튀긴 콩, 볶은 버팔로고기와 함께 비벼먹는 거다. 참으로 특이했다. 사람들은 주로 모모를 먹는다. 빨빠 로컬 커피는 의외로 맛이 별로다.



Nanglo West, anak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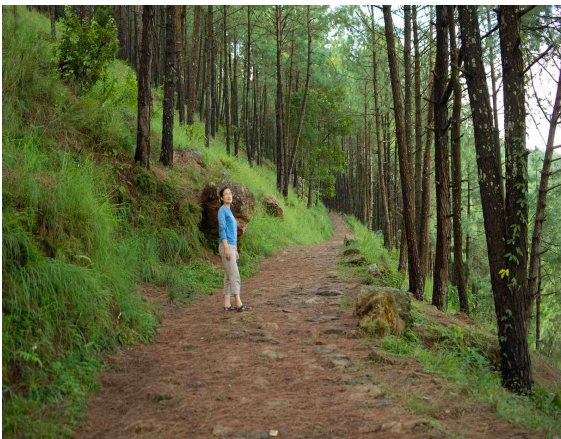


Nanglo West, anakii



Nanglo West, anakii

과자를 산 후 GETUP에 가서 Man mohan 아저씨에게 30루피에 지역 지도와 하이킹지도를 샀다. 이 지역의 갈 만한 곳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리나가르 힐에 오른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소나무길이 쾌적하고 슬슬 걸어 오르면 된다. 부처님 상을 넘어가면 전망대. 주변의 언덕들이 훤히 보인다. 내일 트레킹은 그냥 능선 따라 난 마을길을 걸어 포카라 가는 하이웨이까지 내려갔다 되돌아 올 거다. 발길을 돌려 하누만 상을 지나 언덕 꼭대기에 올랐지만 별 볼 것이 없다. 마을쪽 길로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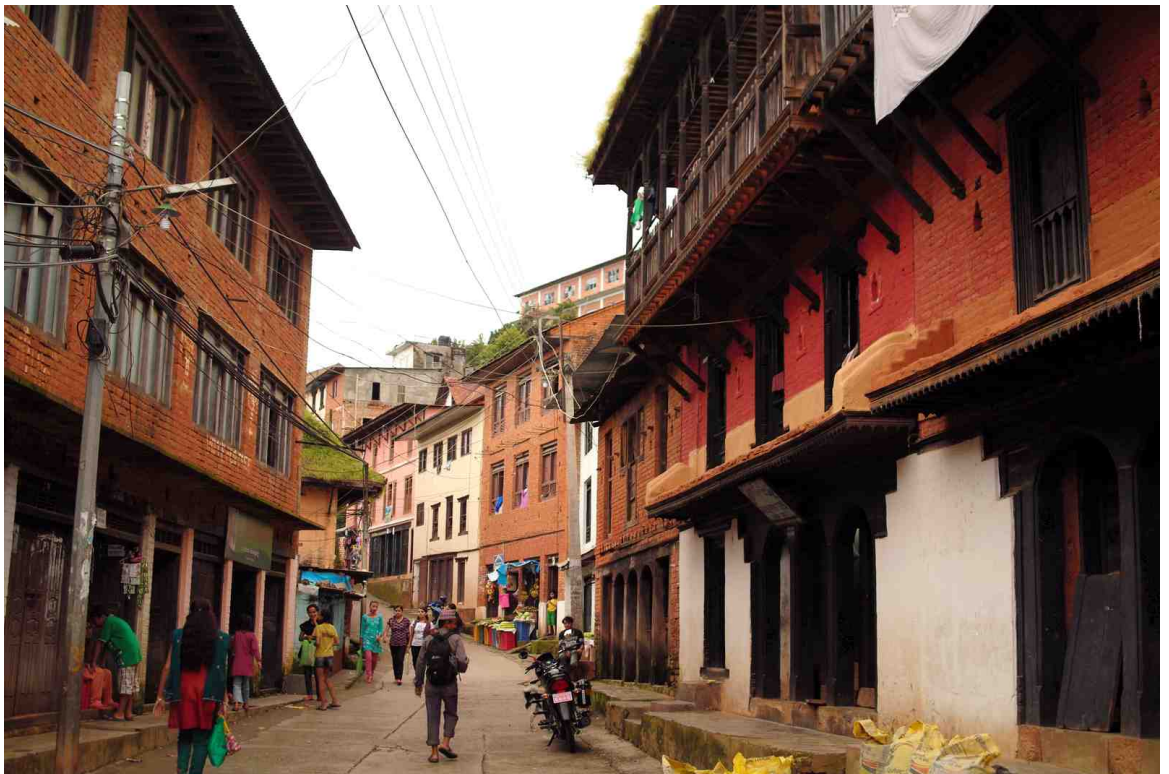


스리나가르 힐 산책로, anakii



하누만 상과 스리나가르 힐, anakii

네와르양식의 집들이 멋있고 사람들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잘 가꾸고 보존했다면 멋진 휴양지가 되었을 텐데 방치되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쉽다.



네와르 풍의 일상적인 판센 거리, anakii



남글로웨스트 실내, anakii

다시 GETUP에 가서 커피농장투어를 물으니 전화를 해 두어야 볼 수 있단다. 빨빠 커피 파는 곳을 물어 뱅크거리에 가 보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다. 카트만 두 가서 사야겠다. 네팔에서는 세 군데에서 커피를 생산한단다. 터미널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다시 숙소 쪽으로 올라와 망고를 사고 들어왔다.

씻고 Nanglo west 에 다시 가서 बे지툑파, 네팔식 프라이드치킨, 추카우니(네와르식 에피타이저)와 커피를 시켰다. 치킨은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식당의 실내 장식은 네와르식의 아름다운 것이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쉰다.

■ 2013.8.8(목) 빨빠 트레킹 Palpa

* 트레킹 : 빨빠 시내 - 바그나스꽃 - 나야 하티아 - 아리아반장

* 이동 거리 : 최소 6.5마일 (11km)

아침 5시 반에 일어났다. 밤새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래도 폭 잤다. 낮에는 더워 6시20분에 출발한다. 산 쪽으로 20분 올라가 포장도로를 걷는다. 한시간만에 고르키꽃에 도착. 구름이 많아 다행히 덥지 않다. 그렇지만 지프가 다니는 길을 걷는

게 좀 재미가 없다.



빨빠트레킹 시작 anak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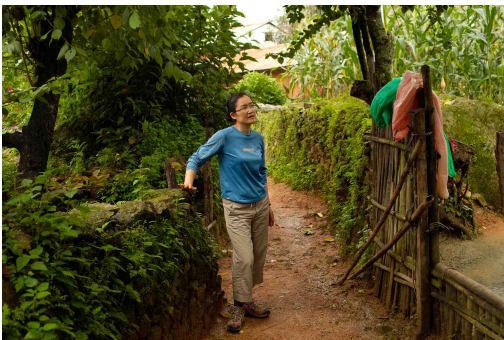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길을 걷는다. 이른 아침이라 실란디 마을은 문을 연 상점이 없다. 바그나스곳에서 한 아줌마가 데비 템플과 뷰포인트를 보러 올라가란다. 안개가 가득해 보이지 않을 테니 그냥 간다. 이 안개만 걷히면 해가 뜨거울 것이다. 꾸준히 내려가는 길일 줄 알았는데 제법 산길을 오르다 내리다 한다. 중간에 만나는 마을은 살림집과 작은 구멍가게들 뿐 마땅히 차를 마시거나 앉을 곳이 없다.

벼랑 아래쪽은 꽤 가파르다. 거대한 나무 두개 아래 시멘트 포장된 곳에서 잠시 쉰다.



잠시 휴식 anakii

나야르 하티아 마을을 지나 오른쪽에 벼랑길을 두고 조금씩 내려간다. 길이 점점 좁아지며 카랑가 마을에 도착했다. 양쪽 담장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작은 마을길이다. 대나무가 우거져 습하고 시원하다. 인사를 하면 순수하게 받아주는 네팔 사람들 구경. 학교 가는 아이들과 살림집 구경, 이런 일상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앞을 곳은 마땅치 않으나 거머리도 없고 여유 있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 걱정이 없다. 카랑가 마을을 지나 급격한 내리막길.



카랑가 마을 anakii

돌과 이끼가 아주 미끄럽다. 계단이 아니라 돌을 비스듬하게 놓은 곳에 이끼까지 끼어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다. 남편과 손을 잡고 정말 조심하며 천천히 내려간다. 마지막에 다치면 큰일이다.

드디어 트레킹의 종착지인 아리아반장에 4시간 만에 왔다. 싯다르타 하이웨이를 따라 포카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로컬버스를 잡아타고 다시 판센으로 간다. 그런데 차장이 1인 60씩 차비를 내라고 한다. 부뜨왈에서 2시간 넘게 온 것이 95인데 말이 되나... 절대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내가 화가 나서 기사에게 나중에 차비를 내겠다고 했다. 남편은 나를 진정시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 차장은 말한 요금이 맞다면서 종점에 내려서 경찰에게 물어봐도 된단다. 그런데 잠깐 갈 줄 알았던 버스가 40분이나 올라간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길다. 결국 내리면서 그냥 120을 주었다.

카트만두 가는 15인승 미니버스를 1인 850에 끊었다. 큰 버스보다 200이 비싸지만 7시간 30분밖에 안 걸린단다. 오전 1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벌써 뒷좌석이다. GETUP의 만만한 아저씨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방심하고 늦게 왔다가 못 끊을 뻔했다. 그러면 10 시간 걸리는 완행을 타야 했을 거다. 표를 끊어 준 사람에게 방금 우리가 타고 왔던 로컬버스의 차비를 물으니 1인 45란다. 두 명 합쳐 겨우 30을 더 먹으려고 그런 무리수를 두다니... 잔머리 굴리는 차장은 15정도를 먹는 듯하다. 룸비니 갈 때 리샤비 미리 내준 차장도 1인 15 썩을 더 받았다.

가파른 지름길을 올라 은행에 갔다. 환율이 수수료 없이 97.4나 되어서 200달러를 바꿨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환전해 온 1000달러를 다 못 썼다. 2013년 초만 해도 1달러 당 80대 중반이었다는데 이렇게 환율 변동이 심하니 어쩔거나... 포카라에서도 91R 이었던 것이 하루 만에 94가 되었는데...

'낭글로웨스트'에 갔다. 11시 반이라 아무도 없다. 정월에 앉아 맛난 밀크 커피와 치킨 특파, 남편이 좋아하는 깐풍기식의 칠리치킨, 그릴드 피쉬를 시켰다. 이 집은 맛을 단순하게 해서 좋고 특이한 로컬 음식이 신기하다. 특히 닭요리를 잘하는데 풍미가 좋으며 살코기가 깔끔하다. 빨빠에는 이 식당만한 곳이 없다. 다른 먹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간단한 초우메이나 달달한 먹거리, 튀김을 파는 가게가 있는 정도다. 학생들은 방과 후 이런 곳에서 잘 사먹는다.



남글로웨스트 anakii

어제 이 식당에 왔을 때 옆에 앉았던 서양 애가 와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 묻는다. 2주 동안 하릴없이 여기 머물거란다. 탄센은 쉬기에 좋은 곳이다. 숙소에 와서 엄마와 언니에게 전화했다. 아주 잘 들린단다. 우리나라는 아주 덥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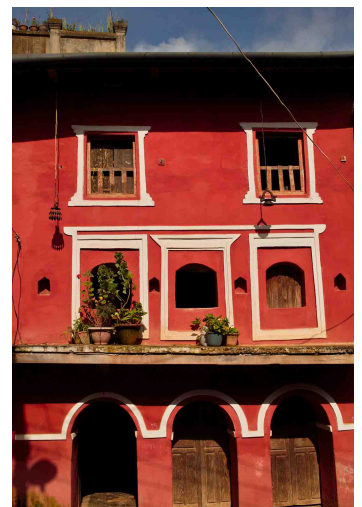
아버지와 누나들에게는 전화가 잘 안 걸린다. 대형 망고 2개 중 1개가 먹을 것 많고 맛이 좋았다. 보통 크면 맛이 없고 섬유질이 많은데 괜찮았다. 남편은 자고 나는 나윤선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쓴다. 숙소앞이 공사판이라 철판을 두드려대고 차들이 빵빵거리고 매연도 들어오고 정신없다.

오후 세시 반에 남편이 일어나 같이 나가 네와르 양식의 집들을 구경하며 거리 북쪽으로 올라간다. 창살과 창틀이 참 아름답다. 남편이 나를 찍고 있는데 하곳길의 꼬마들이 어느 새 뒤에 와 서며 자기들도 찍으라고 난리다. 줌롱에선 사진기를 꺼내면 다 도망가곤 했는데 참 천진하다.



친진한 꼬마들 anakii

이곳 특산물인 늦쇠 가공품 가게에서 품질 좋은 향꽃이 그릇을 90루피에 샀다. 빵 집에서 크래상,도넛,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기름기가 많았던 쿠키에 비해 맛이 담백하고 좋았다.



네와르양식의 건축물들 anakii

길 따라 내려가 마을 아래쪽엔 거대한 공공 풀장이 있었다. 남자애들이 즐겁게

다이빙을 하며 논다. 이런 장소를 마련 해 주었다니 대단 하다. 여자아이들은 옆 빨래터에서 엄마와 빨래하고 목욕을 한다. 풀장 안에는 여자애들이 없다.



나라얀 만디르 anakii



공공 풀장 anakii

입구에서 구운 옥수수를 팔 길래 사먹었는데 깔끔하고 맛있다. 숯불에 구워서 판다. 타마르 나라얀 만디르는 1807년 주지사가 만든 3층 목탑이다. 정교하고 대단히 아름답다. 비슈누를 모시는 이 예쁜 사원은 비둘기가 점령하여 잘 보존되는 것 같지 않다. 내려와 대운동장에 갔다.

뉴호라이즌과 NEC고교의 축구경기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판센의 공공경기장과 공공 풀장은 정말 대단한 시설이다. 공공경기장의 넓이는 축구장 2.5배 정도 된다. 이 산지에 이같이 너른 평지는 유일하다.



고산의 운동장 anakii

잠깐 보다가 아래쪽 식당에서 버프모모와 बेजि 초우멘(각각 50루피)을 먹었다. 양도 많고 맛이 좋을 뿐 아니라 가격도 너무나 싸다.



로컬식당에서 anakii

씩 잘 보존되지 않는 것 같은 네와르건물을 볼 때마다 쓰러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가파른 거리를 오르다 플라스터(일회용밴드)를 겨우 2루피에 샀다 Pokhara에서는 10루피를 불렀던 제품이다. 그런데 겨우 2개뿐이다. 뱅크 거리에서 전통 패브릭 제품들을 살펴보고 팔각정자인 Sital Pati에 들어가 보았다. 좀 지저분하다.

빵 두개를 더 사고 배가 불러서 Nanglo west 에서 커피,라시,작은 피자하나 시켰다. 담담하고 품위 있는 맛. 피자를 반이나 남겨서 싸 왔다. 바나나를 사고 망고 가게에 갔지만 비싸고 덜 익은 것뿐이라 안 샀다.

밤에 잠깐 나가 빨빠 커피 두봉지와 플라스터, 물을 샀다. 내일은 아침 6시45분까지 버스정류장에 가야 한다.

■ 2013. 8. 9(목) 빨빠-카트만두

아침 5시에 일어나보니 밖이 어둡고 비가 많이 온다. 정전이라 남편을 깨워 비상등을 켜다. 짐을 싸며 주변을 보니 바퀴벌레들이 벌벌벌 기다가 가방에도 들어간다. 역시 지저분한 숙소답다.

6시20분에 짐 챙겨 내려와 보니 문이 잠겼다. 직원이 일어나 열어주었다. 10분 정도 걸어 터미널에 도착하여 7시까지 마냥 기다리다 미니밴을 탔다. 앞자리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을 건다. 우리말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인이

빨빠에서 파견 직원으로 1년간 있다.

거의 한 시간이나 기다려도 앞자리 두 명이 안 온다. 결국 그 사람들 대신 마을 사원 쪽으로 올라가 돌을 태우고 출발한다. 1시간도 안되어 아침 먹는 곳에 도착하여 현지인들과 간이식당에 갔다. 감자크로켓, 감자커리볶음, 쌀 도넛 2개와 차 두 잔이 총 95루피. 남편은 싸고도 맛있다고 감탄한다. 불을 때서 튀김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식당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풍경은 촌놈에서 내려올 때만큼 멋지다. 산꼭대기부터 폭포 물줄기가 내려오고 계곡물도 수량이 많다.

부뜨왈에 와서 다시 손님을 기다리려고 한참 있었다. 내려오니 날씨도 덥고 마냥 기다리려니 언제 카트만두에 갈까 싶다. 시간이 고무줄 마냥 늘어지는데도 모두들 당연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다. 사람을 꼭 채워서 후덥지근한 바람이 부는 페라이 지역을 달린다.

나라얀가르 못 미친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른다. 앞자리 아저씨가 나라얀가르에서 시위가 있어 길을 차단했다고 한다. 어떤 당과 관련된 시위라는데 오후 5시에나 길이 열리므로 기다렸다 출발하면 밤 9시쯤 도착한다고 한다. 이 더위에 또 이곳에서 보내다니 어찌면 좋을까. 식당 뒤편에는 거대한 나라야니강이 흐른다. 넓고 수량이 엄청나 무서울 정도다.

1인분만 시킨 달빳은 반찬의 양이 정말 적었지만 계속 국물과 밥을 리필해준다. 다 먹고 2인분 값을 내라고 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1인분 값을 냈다. 다행히 한 시에 길이 열렸다고 한다. 나라야니강은 며칠 새에 강물이 많이 불어 모래톱까지 물이 차서 넘실거리며 흐른다.



나라야니 강 anakii

나라안가르 시내에는 밀려드는 차들로 북새통이고 인도에 잡상인들도 가득하다. 기다렸던 차들이 다 몰려들었다.

왼쪽 길로 접어들어 계곡을 타고 오른다. 숲길이라 선선하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창문을 닫아 더웠다. 한참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데 차만 마셨다. 이번에는 폭우로 유실된 길 공사 때문에 양 방향이 꽉 막혔다. 1시간이나 지체하고 떠났는데 다시 트럭이 멈춰 서 있어서 지체 한다. 수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은 더 밀려 있다. 대단히 복잡하고 매연도 많다.



엄청 밀리는 카트만두 진입로 anakii

외곽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고 우리는 타멜과 가까운 북부의 지역에 내렸다. 택시기사들이 몰려든다. 앞자리 아저씨가 집이 그쪽 방향이어서 15 분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하여 같이 간다.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걷다보니 아저씨 집 근처이다. 빨빠에서 저녁에 낭글로웨스트 갔을 때 우리를 보았던다. 옆에서 기도 하던 사람들 중 1명이 아저씨였다니 신기하다. 헤어지고 뻥나줄 거리에서 좀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물어 옐로우하우스에 도착했다. 거리가 정전으로 어둡다. 800R인데 사람들도 많고 남은 방은 1개뿐이다. 그 맞은편의 가족이 운영한다는 티벳 피스 GH

는 방도 넓고 정원이 보이는 1층 방이 600이다. 5일 간 있기로 하여 550에 들었다. 짐만 두고 타멜의 에베레스트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다. 걷기에 별로 멀지 않다. 스테이크 한 장의 기본형이 400R, 남편은 스파이시 795 짜리(두 장 짜리)로 시켰다. 외국인들이 늦은 시간인데도 많다. 내 것은 알팍하고 먹을 만한데 남편 것은 4센티 두께의 미디엄 스테이크가 두 덩어리나 된다. 물론 부드럽고 맛있지만 남편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시 안 올 거라고 한다.

술을 사고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쉰다. 방도 넓고 온수 샤워도 가능하며 주택가에 있어 길과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고 괜찮은 숙소다. 외국인들이 밖에서 소곤거리고도 좀 떠든다. 열 두 시간 정도 걸려서 온 카트만두라니... 그래도 오늘 안에 들어 온 것이 다행이다. 여행 말미에 가정집 같은 숙소를 싸게 들어서 다행이다.

6. 카트만두 계곡 Kathmandu Valley

■ 2013. 8.10(토) 카트만두

이동 경로 : 스와얌부나트, 빠슈빠티나트, 보드나트, 꼬뻬 곰빠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있다가 남편을 깨워 쉬엄쉬엄 8시 20 분 출발했다. 택시로 스와얌부나트사원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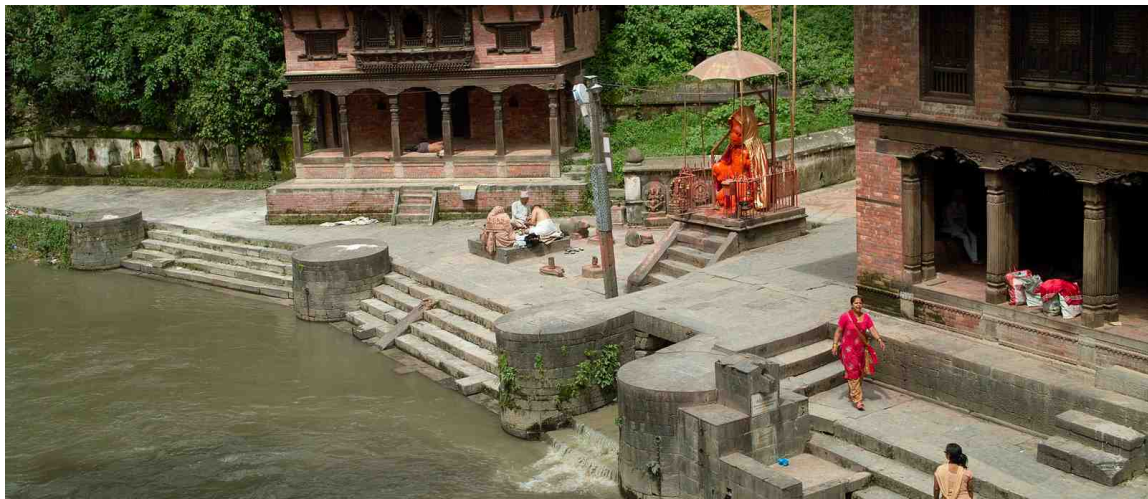
스와यम्भुना트사원 anakii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 의에 탑이 있는 곳이다. 주변에 원숭이들이 많다. 남편이 '노래하는 종'이라는 청동 그릇을 보고 사려다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지 않았다. 꼭대기 근처에서 일인당 200R를 내란다. 그래서 그냥 안 보기로 했다. 동네 공원 같은 곳을 외국인만 돈을 내라고 하다니... 스투파도 멋지지 않다. 택시를 흥정하여 350에 빠슈빠티나트. 강가에 화장터가 있는 곳이다. 입구에서 1000을 내라고 한다. 일종의 지역 발전 연합회라는 조직에서 4월부터 돈을 받고 있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뒤를 쫓아다니며 깎아주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 아래로 돌아가 옆 골목으로 들어간다. 역시 돈을 받고 있다. 슬쩍 본 가트는 크기가 작고 시체 1구를 태우고 있었다.



파슈파티나트의 엄청난 입장료. 돈부터 받고 본다? anakii

나와서 사원 구경을 하고 뒤로 돌아 간다. 신성한 강이라고 하기에는 생활하수가 막 쏟아져 들어와 더럽다. 윗쪽에서 소들이 물에 들어가 있고 역시 매우 더러운 물이 흐른다. 종교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신성한 강. 유입되는 생활하수. 잘 모르겠다. anakii

마을을 지나 보드나트에 갔다. 더워서 천천히 걷는다. 세계문화유산인 이 사원의 입장료는 200이다. 안으로 들어가 크게 한 바퀴를 돌고 위로 올라가서도 돈다. 그런데 입구 말고 사방이 거의 뚫려 있어서 마을과 연결되므로 뒤로 돌아 가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네팔의 상징과도 같은 stupa이다.





점심은 뒤쪽에 있는 가든 키친이라는 정원이 아름다운 곳에서 먹었다. 버프 특파, 거대한 만두 다파오, 커피와 라시를 주문했다. 배가 고파서 사 온 사과를 먹었는데 푸석하다. 네팔은 능금도 판다. 만두는 크고 실하며 속이 딱 차 있다. 무척 맛있다.

한 시간 동안 식당에 있다가 로컬 버스(1인15)를 타고 고까르나 마하데비 사원이라는 곳에 내렸다. 사원이 많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숙소에 와서 확인해보니 다른 곳이었다. 윗쪽으로 더 올라가서 내려야 하는데 잘못 알아 들었나보다. 계단으로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일정한 고도의 길을 걷는다. 빨빠의 산처럼 선선하고 좋은 산책로이다. 언덕 위에서 비가 내려 잠시 놀러 나온 가족들을 구경하며 쉰다. 카레와 고기볶음, 말린 쌀 누른 것을 섞어서 먹는다. 언덕 옆길을 계속 걷다가 소나기를 만나 나무 밑에서 있었다. 네팔 아이들이 같이 비를 피하며 그냥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곱빠가 나온다고 한다. 고도가 있는 곳인데 우산을 가져 오는 것이 당연했다.



니들이 나온 가족들 anakii

꼬뵘 곱빠 근처에서 차를 마시고 곱빠에 갔다. 작은 공동체 마을 같은 곳이다. 식

당과 가게 등 다양한 공간이 있다. 본채 사원은 문이 잠겨있었는데 티벳 스님이 오셔서 들어가 보라고 하며 데려가 열어 준다. 사진도 찍으라고 하고 절을 하는 법을 알려 주시기도 했다. 머리로 두 손을 합장하여 올리고 '붓다', 이마에 대고 'Dharma', 가슴에 '상카', 즉 각 지점에 대는 것이 불佛 법法 승僧을 상징한다. '니마 라마' 라는 이 스님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경주에 스승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 한번 찾아가 보란다.



Kopan Gompa, anakii

인사를 하고 뒤편의 동산과 스투파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다. 부처가 태어난 때부터의 일을 청동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동산도 있다. 멋진 곳이다. 티벳 분들이 네팔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전망도 최고인 이 곱빠는 사원 안에 달라이라마 사진과 환생한 라마 텐진 오셀 린포체의 사진이 있다. 1984년 사망하신 스님의 환생승인 이 스페인 출신의 라마는 현재 사원에는 없다. 나중에 숙소에서 검색해 보니 현재 27세이며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위해 스님의 삶을 접고 스페인에 살고 있다.

오솔길을 내려와 바로 버스정류장에 도착 한다. 금방 버스가 왔으나 4시 45분에 탄 버스(1인 25)가 거의 1시간 걸려서 바그 바잘에 도착했다. 끊임없이 쉬고 태우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좀 걸어서 빅마트 가서 가져 갈 커피와 차를 샀

다. 택시를 타고 '데첸링'에서 버프 특파와 부탄 음식인 '엠마 닷찌'라는 커리를 주문했다. 커리는 영판 진한 크림 스프이고 특파는 소고기 양지를 끓인 국이다. 최고의 특파 가게답게 소고기 다루는 기술과 담담한 맛이 훌륭했다. 실제 부탄 음식이 이렇게 이태리 풍은 아니겠지만 커리도 아주 맛있다. 그런데 서비스와 세금이 23%나 붙어서 라시 한잔 값이 날아간다.

비를 맞으며 숙소로 돌아와 목욕하고 빨래를 했다. 비가 계속 온다. 오늘은 하루 동안 여러 곳을 돌아서 거의 이틀 분량의 관광을 했다. 9시가 다 되어 늦게 돌아와서 졸립다. 카트만두 계곡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달라서 도시 주변의 언덕 정도의 산에 불과했고 빨빠와 별로 다름이 없는 풍경이었다. 쉬바뿌리나 나가르준 산도 볼 수 있었는데 책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평범한 모습에 불과했다. 그래서 굳이 등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카트만두 주변이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여 시간을 많이 배정해 놓았는데 의외로 할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갑자기 생겨난 황당하고 비싼 입장료들은 어이없다. 남편은 우리의 다른 여행과는 달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말하는데 이곳이 물가가 싸서 시도해 볼만한 것들이었다. 고급 음식점은 단순한 맛을 내고 보통 음식점과 좀 다르기는 다르다. 내일은 파탄과 박타푸르 등지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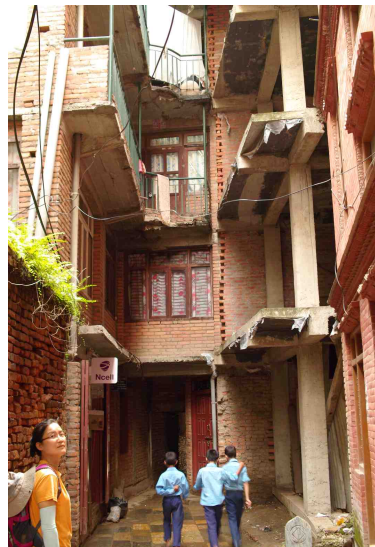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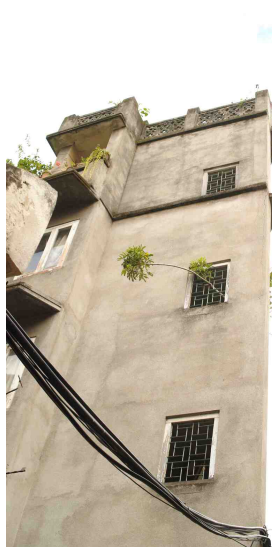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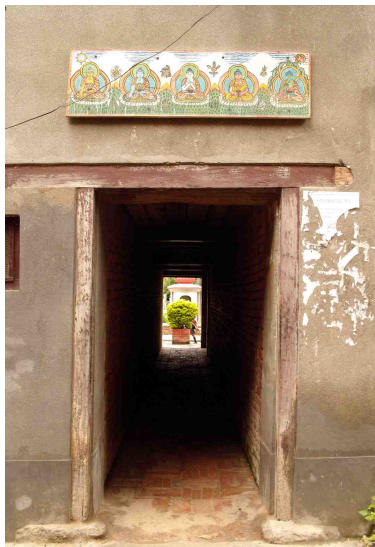
■ 2013.8.11(일) 빠탄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 식사를 숙소에서 주문해 먹어봤는데 맛이 없다. 라시와 커피는 멍멍하고 특파는 싱겁고 국물이 맛없다. 400이나 나왔는데 안타깝다. 8시 25분에 나가서 택시로 8시 40분 경 파탄 입구에 내렸다. 사원들과 거대한 저수지를 보았다. 일종의 호수라고 하지만 짙은 녹색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황색 물이 섞여 쓰레기까지 떠 있다. 그래서 오염물 냄새가 심하다. 집과 집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다른 길로 통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많다. 집은 좁고 5층으로 높게 지어서 유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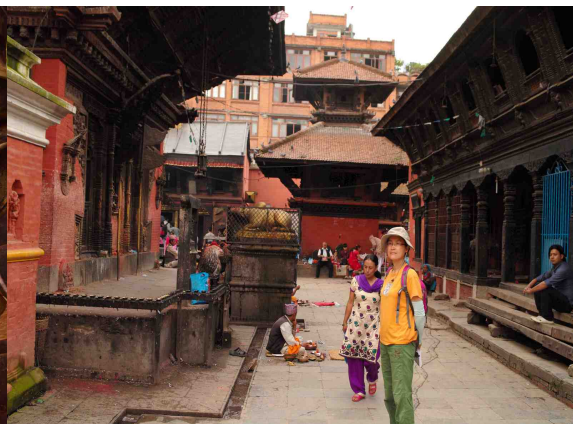
도시 같은 느낌이다. 부처 사원을 지나 5층탑 높이의 사원에 도착했다. 이 꿈베 슈와르 사원은 시바신을 모신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향과 초를 태우는 냄새가 가득하고 사원이 검게 그을릴 정도다. 제법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 형태의 연못이 있다. 돌로 만든 크리슈나 사원을 보고 전통 가옥을 호텔로 쓰고 있는 건물에 들어갔다. 차분하고도 멋진 이 호텔은 5만원 정도가 최저가인 숙소이다. 론리에서도 추천하는 집이고 쉬기에 좋아서 지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집이다. 두르바르 광장은 넓고 정말 볼만 했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심한 녹조다 anakii



특이한 건축물들 anakii



꿈베 슈와르 사원 anakii

잠시 쉬다 박물관에 들어갔다. 다양한 금속 공예품 조각상들에 자세한 영어 설명이 있어 상세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중간 중간에 쉬게 해주는 멋진 의자들과 광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들은 사진을 찍기에 아주 좋다. 3층의 갤러리에는 예전의 파탄 사진이 있다. 지금과 거의 같다. 박물관 카페 들렀다가 비싸서 그냥 나왔다. 광장을 내려다보는 식당들은 전망을 강조하여 대단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두르바르 광장 주변에는 금속 공예품점들이 있는데 가격은 비싸다. 거대하고 아기자기하며 멋진 광장은 상상했던 모습 이상이다. 광장에서 앉아 쉬거나 사진을 찍는다. 깨끗한 물이 솟아 수영장 같은 연못도 있다. 파탄은 과거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듯한 곳이다. 이런 곳이 네팔에 있을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더 실감이 난다.



파탄 두르바르 광장 anakii

식당을 찾아 몇 군데 돌다가 '카페 드 파탄'에 갔다. 그나마 가격이 좀 싸고 정원 풍경도 좋은 곳이다. 손님이 거의 찼다. 라시도 진하지만 볶음밥, 튀긴 면에 소스를 얹은 야채 흡수이와 칠리치킨이 다 맛있다. 센 불로 음식을 만들어 중국풍의 맛을 잘 살렸다. 나에게는 좀 기름지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맛이다.



카페 드 파탄 anakii

나와서 사원 두 군데를 더 보았는데 마지막은 칼리 여신의 사원이다. 사람을 마구 죽이는 파워 있는 신이다. 택시로 타멜에 내려 걸어 들어오다가 술을 샀다. 주변 가

계는 어제 빅마트보다 많이 비싸다. 망고는 못 샀다.

3시 넘어서 들어와 씻고 책을 보거나 쉰다.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올라갔더니 살림 집이라서 갈 수가 없었다. 5시 반이 지나자 소나기가 심하게 쏟아진다. 다른 외국인 들은 식당에 내려와야 정원이 보이지만 우리 방은 바로 눈앞에 꽃과 잔디가 보인다. 비가 오니 남편은 일찍 들어와 쉬기를 잘 했다고 한다. 6시가 다 되어 가까운 따갈리 키친에 간다. 넌 베지, 베지 달빳과 라시 2잔이 480. 요구르트까지 나오는 제대로 된 밥집이다. 괜찮다. 바지를 하나 사고 망고 3kg를 드디어 샀다. 시즌이 끝나고 있어서 비싸단다. 숙소에 와서 남편이 부탁하여 선풍기가 왔다. 빨래가 잘 안 마르고 1층이라 밤에는 커튼을 치는데 잘 되었다.



멋진 두르가 신전 anakii

■ 2013.8.12(월) 박따푸르



박따푸르 가는 길에 처음 본 신호등 anakii

아침 7시에 일어나 어제 산 망고를 맛있게 먹고 8시에 출발 한다. 숙소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그 바잘. 15 분에 바로 박따푸르 가라고 외치는 차장 소리에 차를 탔다. 중간에 느적거리다 한 시간 넘게 걸려 티미를 지나 도착한다. 주변은 시골의 느낌이 많이 난다. 입장료는 1인 1100R. 달러로는 15\$ 란다. 30\$ 이면 2900 정도인데... 루피가 낮지... 오래된 도시 느낌이 난다기 보다는 좀 후줄근하다. 건물들이 파탄처럼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 중간 중간에 있는 저수지들은 진한 녹색이고 부글부글 끓는 기포가 올라오는 물속에 안쓰럽게도 잉어가 산다. 비둘기 시체도 빠져 있고 살 수 있을까 싶은 오염이 심한 물이다. 어떤 저수지 물은 짙은 황색으로 보기에다 끔찍스런 색이다. 생활하수가 다 들어가고 더럽다. 환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탓일까? 그렇게 냄새가 나는 물을 두고 어찌 사는가 싶다. 이곳에는 파탄처럼 깨끗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수도는 대부분 끊겨 있고 물이 귀해 보인다. 예전에 물이 풍부했을 오래된 우물 속에는 쓰레기들이 빠져 있고 아주 깊다.

작은 사원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붉은 색 물감을 동상 위에 칠하거나 쌀과 음식을 주변에 뿌려준다. 버터 램프 때문에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는 곳이 많다. 도기 광장에는 말리고 유약을 입히는 도기들을 늘어놓은 모습이 장관이었다. 박따푸

르의 시민광장에 해당되는 토마디 툼레에 왔다. 5층 높이의 냐따뿔라 사원이 있다. 크기도 거대하고 높아 멋있다.



도기 광장과 타추뿔 툼레의 냐따뿔라 사원 anakii

주변에는 유명한 식당들이 많은데 전망 때문에 비싼 곳들이다. 마르코 폴로는 그 중 작고 싸 보여서 들어갔다. 카트만두 오믈렛, 카레 향이 좋은 비리야니, 라시, 주주 dau 모두 맛이 좋았다. 작고 허름하지만 광장 전망이라서 그러는지 10%의 서비스 요금을 붙여 500 정도가 나온 게 어이없다. 어쨌든 잘 먹었다. 가네쉬 돌상을 지나 두르바르 광장에서 사진을 찍고 길 따라 내려 왔다. 최초의 중앙광장인 따추뿔 툼레는 박타푸르의 왕족이 16세기 말까지 살았던 곳이란단다.



닷따르레아 사원 anakii

달따르레야 사원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신을 섞은 달따르레야를 모시는 신전이라는데 무슨 날인지 잘 차려입은 아줌마들이 수백 미터 씩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제물을 바치려고 서 있다. 장관이었다. 자식들이 입시 시험이라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내려오다가 슈퍼에서 맛살라들을 샀다. 주주 dau 사진이 붙은 가게에서 일인당 35R 씩 사 먹었는데 맛있다. 위는 크림 맛이 강하고 속은 부드럽고 진하다. 이런 요구르트는 처음이다. 도기에 만들어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판다. 내려가다가 제대로 주주 다우만 파는 가게를 또 만나서 들어가 남편은 두 개, 나는 한 개를 먹었다. 다 먹으면 도기는 버린다. 이 가게는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맛이 좋다. 2인분 이상 되는 작은 통 하나를 더 사 왔다. 현지인들도 많이 먹는다. 값은 겨우 30씩이다. 아마 원유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어서 더 진하고 특별한 맛이 나는 듯하다. 박타푸르는 파탄보다 인상적이지 않아서 주주다우로 기억될 듯...



주주다우 anakii



최고의 주주다우집. 게이트근처 anakii

아나키 : 주주다우는 박타푸르까지 차타고 가는 유일한 이유가 될 만큼 맛있다. 별칭이 King Curd 였는데 과연 킹왕짱 크림이 요구르트. 게이트 근처의 마지막 가게에는 냉장해 놓은 주주다우를 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우리가 산 것은 70짜리 직경 10cm정도의 플라스틱 통에 든 것인데 사람들은 케익을 사듯 거대한 도기그릇에 담긴 것도 종종 사 간다. 이렇게 맛있는 요구르트는 난생 처음이다,

게바라 : 내려오자마자 타멜 간다는 차를 탔다. 고속도로를 거쳐 와서 40 분 만에 타멜 근처에 내렸다. 올 때 보다 더 좋고 빠른 차인데도 25씩 받는다. 박타푸르 갈 때는 허름한 차에 매우 느렸고 35R 받았다. 차장이 더 받은 듯...

걸어서 'fire & ice'에 가서 피자를 시켰다. 비싸지만 완전 이태리식 피자로 남편도 인정한 최고의 피자집이다. 식당에는 사람이 꽉 찼다. 그러나 봉사료와 세금을 포함하여 23%의 값이 추가된다. 걸어오다가 망고 4Kg를 사고 숙소로 4시 도착. 샤워와 빨래를 하고 쉰다. 남편이 검색하여 싸고 맛있는 식당을 찾았다.



피자 싫어하는 나까지 만족시키는 최고의 피자. anakii

6시에 다시 작은 별 식당을 찾아 간다. 약간 헤맸지만 주변을 구경하며 갔다. 버프 특파, 버프 튀김 모모, 칠리치킨과 통바를 시켰다. 이미 동네 아저씨들 여럿이 마실을 나와 담소하시며 통바를 드시고 계셨다. 기장으로 만든 통바의 맛은 막걸리보다는 청주에 가까운 맛이다. 남편이 가히 최고라고 한다. 서서히 오르고 나중에 착끈다고. 이런 걸 늦게 발견하다니... 가격표에는 안 나온다. 통바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오랫동안 마시는 풍류와 모습도 좋다. 품위 있어서 값이 200쯤일까 100쯤일까 추측을 해 본다. 겨우 60. 이 집의 음식 값은 정말 싸다. 요리 3개와 통바가 총 305. 통바와 창의 차이를 물으니 비슷한 거라고 한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와 바람을 쐬고 산책을 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도 이 식당에 또 올 거란다. 남편이 입맛에 잘 맞는다며 앞으로는 비싼 식당은 안 가겠다고 한다. 8시에 모든 일정이 끝났고 내일은 쉬 거다.



네팔맥주 똥바 anak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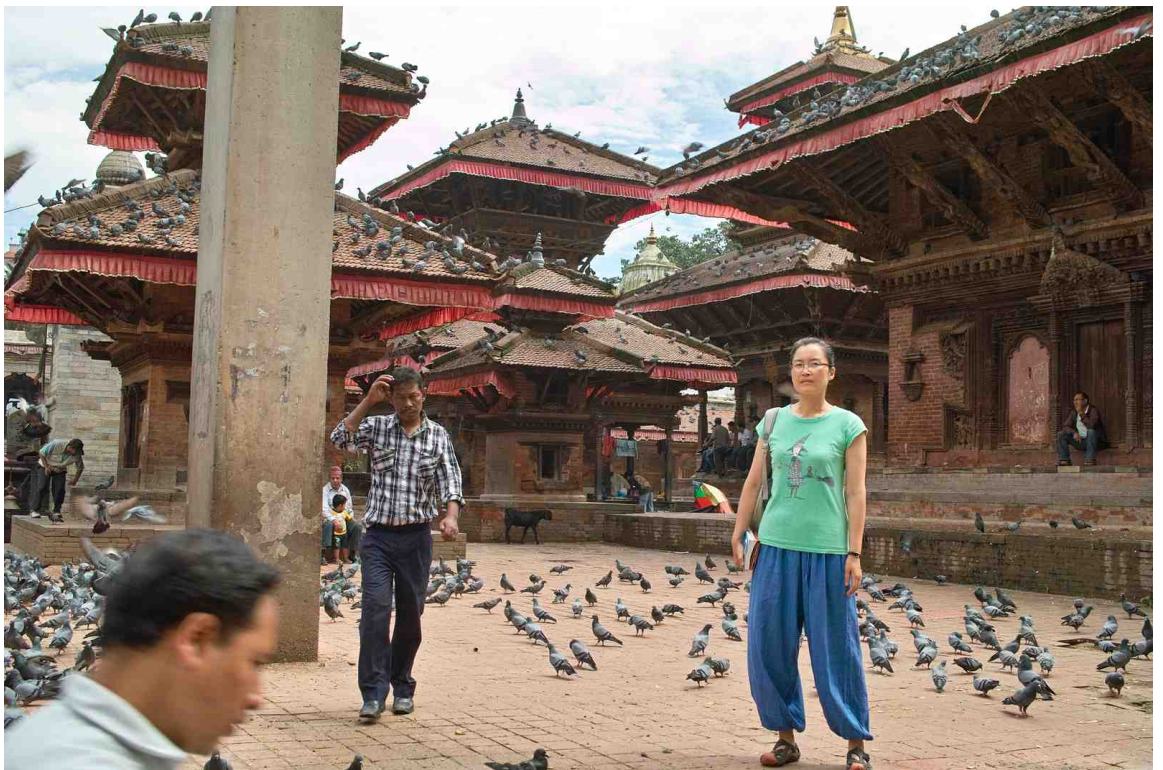
엄청난 망고 anakii

■ 2013.8.13(수) 카트만두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 망고와 주주다우를 먹고 책을 읽으며 신다. 이제 네팔의 역사가 짝 정리된다. 하루가 지나도 주주다우는 진짜 맛있다. 윗부분은 완전 버터 층이다. 9시에 숙소에서 나가 작은 별에 갔지만 안 열었다. 타멜 남부의 freak street는 예전에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한적하다. 카페를 찾으려고 기웃거리다가 두르바르 남쪽 근처에 갔더니 직원이 표를 끊으라고 난리다. 우리는 안 들어 갈 거라고 하며 사진 한 장 만 찍고 돌아서서 드디어 카페를 찾았다. 스노우맨 카페는 40년 동안 내,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다크 초콜렛 케익, 치즈 케익과 우유, 핫초코를 먹었으나 기대보다는 별로다. 예전에 케익이 귀했던 시절에는 이 정도도 인기가 있었겠지만 좀 달고 멀컹하다. 나와서 론리에서 제시한 두르바르 남쪽 도보 여행 코스를 걷는다. 좁은 골목에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옛날 집들, 우물, 거리, 시장을 본다.

큰 사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다가 우리도 가 보자 한다. 제물을 사서 바치는 모습, 밖에는 바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앞쪽에는 거대한 사원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 열결에 우리가 어느새 두르바르 광장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다. 나중에 남편이 말하는데 첫 번째 사원에 들어와서 밖을 쳐다 보았을 때

벌써 대표소가 바깥쪽에 보이더라. 이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감지했다고. 사원만 보고 걷다가 복잡한 사람들 틈에 섞여 작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와 버렸던 것이다. 직원은 옆길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우리를 못 봤다. 작은 길들을 다 차단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열결에 1500R를 절약 하면서 두르바르 광장에 들어 온 우리는 좀 어이가 없었다. 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엄청 많은 비둘기떼, 왠지 지저분하고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적들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파탄이나 박타푸르가 낫다. 도대체 광장 주변의 길까지 다 차단해 가면서 왜 외국인에게만 비싼 요금을 지불 하게 하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비둘기 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대로 어디에 편하게 앉지도 못했다. 사람의 사원이 아니라 비둘기의 사원이다.



비둘기가 점령한 광장 anakii

어쨌든 공짜 구경을 잘하고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 골목길 투어를 계속한다. 시계 점에서 17년 된 여행의 중요한 동반자 타이맥스 시계 -96년 첫 유럽 배낭 여행지. 영국의 빅토리아 코치 스테이션에서 네덜란드로 떠날 밤 버스를 기다리며 가게 앞에서 맥주를 마시

고 있을 때 만났던 광부 출신의 소매치기로 추정되는 브라이언이 선물로 주었던... 그때 이상한 발음의 영어를 열심히 들어 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는 것만으로 선하게 생긴 이 남자는 주머니에서 꺼낸 시계 3개 중 1개를 고르게 했다. 금장 시계도 있었고 이상하게 시계가 많다는 것에 딱 직업과 상황이 짐작이 되었다. 경찰서에도 들락거렸다고 하고 예전에 좋았던 때를 그리는 말을 통해서 대처 정권 때 어려움을 겪었던 광산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고 도시로 밀려와 하층민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짐작하게 했다. 브라이언은 좀 낡았지만 단정한 옷에 선한 얼굴,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어서 상황이 참 안쓰러웠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선물로 주겠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애매한 분위기여서 그 중 가장 허름하고 싸 보이는 걸 골랐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유명한 타이맥스 시계였다. 암스텔담에 간다니까 참 부러워했었다. 이 사람들은 그 곳을 성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담배를 권하기도 했었는데... 브라이언은 헤어지며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고 볼에 뽀뽀를 했다. 얼굴이 펑 쓸쓸해 보였다. -의 낡은 시계 줄도 같고 나니 멋진 밤색 때문에 새 시계 느낌이 난다. 레몬 소다도 사 마시며 걷는다. 허리가 아파서 city 물에서 히말라야 자바 커피 점에 갔다. 에스프레소 향이 아주 좋다. 잘 쉬고 나와 다시 걸다가 라니 포카리(여왕의 연못)의 가장자리에 큰 가물치들이 바글바글 몰려나와 헤엄치는 것을 육교 위에서 구경한다. 철조망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니 그림의 떡이다. 혹시 수질오염이 심해서 산소 부족으로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



라니 포카리의 가물치떼 anakii

왕궁 거리의 우정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먹었다. 탕수육은 밥반찬용인지 좀 짜고 마파두부나 볶음면은 좋았다. 밥과 함께 먹었다. 질이 좋은 음식들이다.



우정식당 anakii

2시에 나와 숙소 주변 빅마트에 갔다. 집에 가져갈 것 몇 개를 사고 다시 근처에 아로마 점에서 몰약, 자스민, 바닐라 오일을 샀다. 우리나라에서 비싸거나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아로마 가든의 아저씨는 천연 오일에 관심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한다. 유럽인들이 가장 관심 많고 중국 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정찰제라며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다. 다시 털실점에 가서 야크 털실을 샀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다. 숙소에 5시에 돌아와 돈 계산을 해보니 비싼 물건들을 좀 사서 20달러 정도 더 환전해야 한다. 여섯시 반에 다시 나가서 환전 30 달러를 했다.

작은별 식당에 가서 똥바, 라시, 수제비 뎀뚝과 칠리 치킨을 시켰다. 오늘은 식당의 손님이 2층 까지 꽉 차서 다른 손님 옆자리에서 먹었다. 맛은 역시 좋은 편이다.

그저께 바지 샀던 곳을 찾아 갔다. 오늘 입고 다녀 보니 거의 입지 않은 듯 너무 편에서 남편도 같은 색을 사고 노랑을 하나 더 샀다. 돈이 애매하게 숙비를 제외하고 택시비 460을 빼면 1000 남았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환전소에서 재환전이 되냐고 하니까 거부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환전소에서 천 루피를 10 달러로 바꿔 주었다. 그리고 나니 남편은 맥주도 살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냥 돌아왔다. 숙비를 지불하고

460이 남았다. 짐 정리를 하면서 맛있는 망고를 배부르게 먹었다. 네팔에서 후회 없이 잘 먹고 잘 구경하고 간다.

■ 2013.8.14(목) 카트만두~성도

6시 50분에 일어났다. 짐을 챙기고 요구르트와 마지막 남은 망고를 먹었다. 쉬다가 9시에 숙소를 나와 공항까지 350에 택시를 흥정해 타고 9시20분에 도착했다. 남은 돈 100으로는 베지버거를 사먹었다. 콩을 이용해 패티를 만들고 마요네즈를 뿌렸는데 렌지에 데워 주니 먹을 만하다. 공항 물건들은 품질은 좋지만 비싸다.

마지막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남편 가방에서 스위스 칼이 나왔다. 아침에 실수로 작은 가방에 넣었나 보다. 칼을 포기하려 하다가 일단 다시 밖으로 나가 부쳐보기로 했다. 다행히 잘 처리하고 왔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내릴 때 승무원에게 말해 찾아가라고 표를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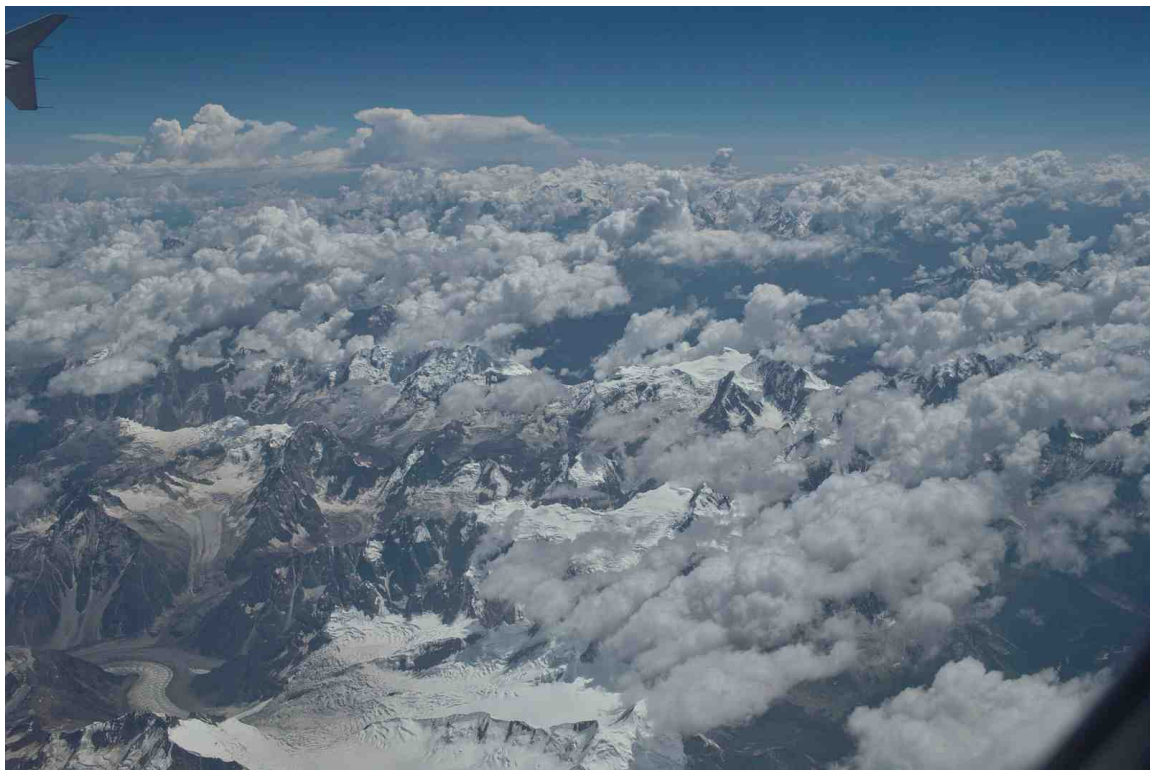
아나키 :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게 당연한 물건을 이렇게 쉽게 찾아온 공항은 처음. 보안요원에게 칼을 받아서 출국심사 이미그레이션에 가 관리직원에게 칼을 도루 부칠거라 이야기하니 여권을 맡기고 가란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여 1층의 티켓 카운터로 거꾸로 가는 건 계단이 따로 있다. 계단 끝에서 경비원에게 칼이야기를 하니 바로 보내준다. 티켓 카운터에서 칼을 봉투에 넣으니 이른다.

“도착하고 나서 승무원에게 말하세요”

다시 내려왔던 계단으로 가 경비원에게 눈인사하고 이미그레이션으로 가서 여권 맡긴 직원에게 여권 찾아 보안검색을 다시 받고 가면 된다. 이렇게 널널하게 되다니. 중국 같으면 앞잡없이 스위스칼을 빼앗겼을텐데.

게바라 : 남편 옆자리에는 네팔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티벳 청년이 앉았다. 불교철학과 언어를 공부했다는데 이제 졸업장만 받으러 다녀오면 된단다. 성도에서 900km나 떨어진 티벳지역의 산지에 집이 있다는데 버스로 15시간이나 걸리

고 최저 3700m에 마을이 있다고 한다. 창밖으로는 중국의 내륙지방의 험한 산지와 호수, 눈 쌓인 정상이 멋지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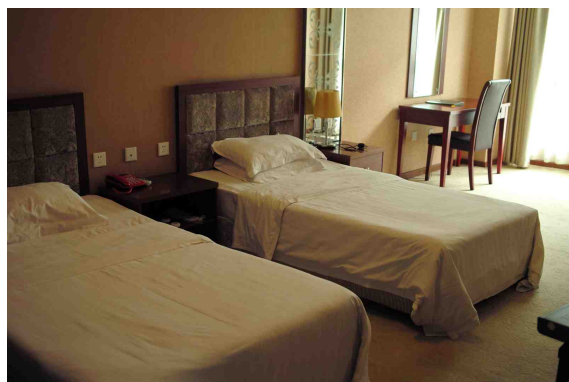


중국쪽 산지 anakii

11시 반에 출발하여 두 시간 15분을 뒤로 돌리고 거의 5시가 되어 내렸다. 짐을 찾고, 300위안을 인출한 뒤 Terminal2 까지 걸어간다. 날씨가 34도나 되어 덥다.



트랜짓호텔 카운터 anakii



민항거룡호텔 anakii

R구역에서 바우처를 보여 주었는데 직원이 영어를 못해서 어딘가에 물어 핸드폰

으로 받은 영어 문장을 남편에게 보여준다. 호텔직원을 기다려 차로 민항거룡호텔에 왔다. 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고 주변에 서남민족대학이 있다.

숙소는 큰 원룸크기의 고급 호텔이다. 거실도 따로 있고 침대도 커서 묵어 본 호텔 중 가장 좋다. 카운터에 물어 시내까지 버스타고 가는 방법을 알아냈다. 직원이 영어를 못해 종이에 버스번호와 차비를 적어준다.

잔돈을 바꿔볼까 했지만 영어가 안 되어 포기하고 6시50분에 나갔다. 길 가 과일 파는 아저씨에게 복수박과 사과를 사고 잔돈을 받았다. 정말 다행이다. 숙소 앞 정류장에는 306번이 없다. 한 젊은 언니가 우리를 도와 306번 버스 정류장을 찾아 동행해 태워 주고 기사에게 내릴 곳을 전해주고 돌아갔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버스 차비는 2원이지만 잔돈이 없어 5원을 냈다. 50분 정도 달려 시내에 진입한다. 버스는 시원하고 쾌적하다. 사는 모습이 우리와 똑 같아 새롭지 않다. 길에서 음식을 사먹느라 분주하고 더워서 아예 옷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다. 네팔에 오니 모든 게 깨끗하게 보인다. 성도는 옛 삼국지시절 촉의 수도로 제갈량과 유비를 모신 사당이 있다.



테마파크처럼 꾸민 무후사공원 내 금리 거리. anakii

무후대로에 내리고 길 따라 걸어 무후사공원에 갔다. 산책 나온 시민들이 많다. 날은 후덥지근하다. 공원을 통과하여 삼국지시대의 거리를 재현했다는 금리(錦里) 거리에 갔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예스러운 모습을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놓았다.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탄탄면과 닭냉채무침을 먹었다. 입을 알싸하게 만드는 소스를 사용해 맛이 강렬하다. 얼얼하게 마비시키는 향신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매우 독특하며 기름과 고추향신료를 많이 쓴다.

늦으면 버스가 끊긴대서 빠르게 돌아오다가 식당에서 소고기 냉채무침과 면을 시켰다. 면은 안 된대서 냉채만 먹었다. 아까의 그 강렬한 소스 맛과 비슷하다. 맛있지만 짜고 얼얼하다.

306번 정류장에 오니 9시가 약간 넘었는데 막차시간이 9시다! 늦어서 택시를 타야 할까 고민하던 중, 5분쯤 지나자 차가 왔다. 10시 가까이 숙소에 잘 도착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를 중국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성도는 관광도시의 어수선함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한다는 느낌이다. 카운터에서 물을 얻어와 차를 마시고 과일을 맛있게 먹었다.



사천요리는 얼얼한 느낌? anakii